



## 예장총회(합동보수) 제101회 총회장 이규필 목사 연임

주제 : 협력하여 선을 이루는 총회(롬8:28)



대한예수교장로회총회(합동보수)는 9월 22일(목) 오후 1시 서울 금천구 시흥대로 소재 동천교회 본당에서 제101회 정기총회를 개최하고 총회장 이규필 목사를 비롯 임원 전원 유임되었으며, 경남신학교 학장 정호석 목사를 제2부총회장으로 선출했다.

성 총회에 앞서 총회장 이규필 목사(동천교회)의 예배인도로 부총회장 전예희 목사(신광교회)가 기도를, 서기 임상국 목사(천복복지교회)의 성경(롬 8:28)

봉독에 이어 이 총회장은 "협력하여 선을 이루는 총회"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선포하고, 총무 조영만 목사(시온장로교회)가 광고를, 증경총회장 윤석철 목사(총회신학대학원 총장)의 축도로 1부 예배를 마쳤다.

이날 이 총회장은 '협력하여 단합된 총회로, 선을 이루어 성장해 가는 총회로서 하나님께는 영광을 돌려드리고 축복된 삶을 위하여 전진할 것'을 주문했다. 아울러 총회를 위하여 혼신을 다해 기도하며 뛰겠다는 다짐과 협력하여 선을 이루는 총회로 우뚝 서서 한뜻 한마음으로 힘써 줄 것을 믿으며 이에 확신을 갖고 총성을 다해 일할 것을 다짐했다.

2부 성찬식에서 증경총회장 서동기 목사의 집례로 경남노회장 강치현 목사가 기도를, 한기장 목사, 김관호 목사가 분병, 분산위원을, 집례자의 축도로 마쳤다.

3부 이규필 목사의 사회로 총회장 회무처리에서 순서에 따라 진행되어, 임원 선출에서 총회장 이규필 목사(유임) 제1부총회장 전예희 목사(유임), 정호석 목사(경남신학원 학장)를 제2부총회장에 선출하고, 서기 임상국 목사(천복복지교회), 부서기 주지광 목사(사천대곡교회), 회의록서기 서재식 목사(풍성한교회), 회록부서기 김상대 목사(반석교회), 회계 송인섭 장로(양문교회), 부회계 이점수 장로(천복교회), 총무 조영만 목사(인천시온교회) 등이 유임되었다.

스마트폰 QR코드로  
지저스타임즈를  
볼 수 있습니다.



가을이 빨갛게 익어만 간다.  
우리들에게 4계절을  
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잘 익은 고추와  
함께 가을이  
빨갛게  
익어 가네요.  
우리네 인생도  
세월이 갈수록  
좀 더 아름다워  
지고 겸손해  
졌으면 좋겠다.

사진작가  
곽완근 기자



## 예장총회(진리) 101회기 총회장 장한국 목사 취임

하나님과 동행하는 진리총회, 하나님 중심의 생활이 되자

예장총회(진리)가 새롭게 창립되기까지 불의와 불법으로 얼룩진 개혁총회를 2015년 3월 21일 5개 노회가 공동으로 사퇴한 후 가칭 진리총회주비위원회를 결성하고 2016년 6월 6일 금호설악리조트에서 예장총회(진리)가 창립총회로 개최되어 장한국 목사를 만장일치 초대 총회장에 추대했다. 초대총회장에 당선된 장한국 목사는 지난 9월 20일 오전 12시 경기도 의왕시 계원대학로 소재 주사람교회 본당에서 제101회 정기총회를 개최하고, 총대 70여명의 축하를 받으며 총회장 장한국 목사가 취임식을 가졌다.

이날 개회예배는 서기 오진철 목사의 인도로 진행되어 회록서기 배만복 목사가 기도를, 인도자의 성경(창 5:21~24)과 유순목 목사의 특별찬양, 총회장 장한국 목사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진리총회"라는 주제로 말씀을 선포했다.

장 총회장은 '진리총회는 하나님께서 특별히 말씀과 은혜를 주셔서 세워진 총회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총회라면서 축복을 기원' 하고 애초에 하나님과 동행한 것처럼 진리총회와 우리도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갖자고 했다. 그러면서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과 일치되어졌을 때 하나님 중심의 생활이 된다.

하나님의 말씀에 의하여 자신의 사상은 없어지고 하나님의 사상으로 바뀌어야 하고, 이에 하나님의 마음으로 사상동행이 이루어진 자에게 하나님의 마음으로 일치하게 되고, 생활동행일 일치할 때 하나님 중심으로 일치가 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믿음으로 사는 생활로 마음이 바뀌어야 할 것을 전하면서 진리총회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성 총회가 될 것을 기원했다.

이어 회계 이영이 목사가 봉헌기도를, 2부순서로 축사와 취임축하의 자리가 되었으며, 3부 순서로 성찬식이 거행되고, 4부 순서는 101회 회무처리에 들어갔으며, 5부 순서는 부회계 김정미 목사의 인도로 폐회예배가 드려지고 총회장 장한국 목사의 축도와 폐회선언이 있는 후 성 총회를 마쳤다.

이날 총회장 장한국 목사는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찬송과 영광을 돌려드리고 하나님이 우리 총회와 모든 귀하신 동역자 여러분들을 잘 섬기라고 저를 세워주셨다는 믿음에서 총회가 이제 설립되어 적은 교단이지만 열과 성을 다하여 섬김과 총성할 것을 굳게 다짐했다.

또한 진리총회라는 이름에 걸 맞는 총회와 총회장이 될 수 있도록 오직 진리로서만 총회 안과 밖에서 국내외적으로 전 세계를 향하여 진리의 빛을 발하겠고, 지금은 주의 재림의 때가 가까워지고 영적 흑암의 역사는 더 심해져서 예수 밖에도 구원이 있다는 기독교를 말할 하고자하는 악한 역사가 심해지고 있는 이때에 진리와 주의 재림에 관한 예언의 말씀으로 많은 영혼들을 잃은 길로 인도하고 생명을 살리는 데에 사명감을 갖고 전력투구할 것을 약속하고 이 일을 위하여 총대 여러분의 아낌없는 기도와 협력과 성원을 부탁하면서 취임사를 전했다.

### 예장진리총회의 교단설립 결의문

1. 설경을 절대 권위로 둔다. 2.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며 복음의 5대 요소인 예수 그리스도의 동정녀 탄생과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심과 승천심과 다시 오심을 믿으며 오직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다른 구원자가 없으므로 믿는다. 3. 신학적으로는 개혁주의 노선을 표방하며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과 대소요리문답 및 정로교 신조를 믿고 지킨다. 4. 그리스도인으로서의 덕을 세우는데 최우선 하며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이웃을 사랑하고 성령에 의한 신앙 양심으로 온 누리에 그리스도인으로서의 빛을 발하는 총회가 된다. 5. 본 총회는 몸 된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하나님이 부여해 주신 권위로 세워진 총회가 됨으로 이에 순종하고 화합하며 하나가 되는 총회가 된다. 라는 5개 항을 결의했다.

진리총회 101회기 임원은 다음과 같다.

총회장 장한국 목사(주사람교회), 부총회장 조조복 목사(창년교회), 서기 오진철 목사(유성교회), 부서기 박민규 목사(새생명교회), 회록서기 배만복 목사(축복교회), 부회록서기 김성덕 목사(생수교회), 회계 이영이 목사(유전교회), 부회계 새에루살렘교회)

**대한예수교 장로회 (합동보수) 제101회 성총회 단합된 임원진**

총 회장

이규필 목사  
(동천교회)

총회신학대학원 총장

윤석철 박사  
(천복교회)

주제 : 협력하여 선을 이루는 총회(롬8:26)

제1부총회장  
  
전예희 목사  
(신광교회)

제2부총회장  
  
정호석 목사  
(진주사랑의교회)

서기  
  
임상국 목사  
(천복복지교회)

부서기  
  
주지광 목사  
(사천대곡교회)

회의록서기  
  
서재식 목사  
(풍성한교회)

회의록부서기  
  
김상대 목사  
(반석교회)

회계  
  
송인섭 장로  
(양문교회)

부회계  
  
이점수 장로  
(천복교회)

총무  
  
조영만 목사  
(시온교회)

영남대구신학원 학장  
  
홍홍주 목사

협력하여 선을 이루는 총회가 되기 위하여 총회장을 중심하여 임원 모두 열심히 뛰겠습니다.  
총대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총회장 이규필 목사 외 임원 일동

본 교단(합동보수)은 주 안에서 뜻을  
같이할 개 교회와 교단의 가입을 환영합니다.

**총회신학대학원**  
총장 윤 석 칠 박사

**경남신학원**  
학장 정 호 석 목사

**영남대구신학원**  
학장 황 흥 주 목사

**사단법인 예장합동보수연합신교회**  
이사장 이 규 필 목사

**총회사무실** 서울특별시 금천구 시흥대로 153길 94 (구/가산동)  
총회장 ☎ H.P 010-7474-3173, 02)854-1326, 496-0181(FAX)

## 각 교단 총회는 한국교회를 살리는 회개운동 일어나야

예장중앙총회를 시작으로 예장대신, 합동예총, 예장개혁(연지동)



총회장 백기환 목사   총회장 이종승 목사   총회장 김용철 목사   총회장 최철용 목사   총회장 배광호 목사   총회장 유관재 목사   총회장 박 옹 목사

### 예장(중앙)총회 제47차 정기총회 백기환 목사 연임

예장(중앙)총회(총회장 백기환 목사) 제47차 정기총회가 서울 중앙임마누엘센터 대예배실에서 1일 오전 11시 개최되어 2일까지 진행되었으며, △총회장 백기환 목사(서울중앙교회)연임되고 신 임원들이 선출되었다.

예장 대신, 백석 통합 후 제101회 총회로 천안 백석대학교에서 지난 9월 5일부터 8일까지 개최되어 둘째날인 6일 새로운 임원진이 되성되었다. 신임총회장에 이종승 목사(창원 임마누엘교회), 제1부총회장 유충국 목사(제자교회), 제2부총회장 이주훈 목사(동탄사랑의교회),

제3부총회장 박근상 목사(신석장로교회), 장로 부총회장 박창우 장로(원전교회) 등이 기립박수로 추대되고 임원들이 선출되었다.

### 합동예총, 제101회 총회 신임 총회장 김용철 목사 선출

대한예수교장로회총회(합동예총)이 제101회 총회를 지난 9월 20일 경기도 부천시 고강동에 위치한 좋은우리교회(담임목사 방정웅)에서 개최되어 신 임원진은 △총회장 김용철 목사 △부총회장 임종철 목사, 문인주 목사 △총무 방정웅 목사와 임원이 선임되었다.

예장합신총회는 제101회 성 총회가 지난 9월 20일부터 22일까지 충남 덕산 리솜스캐슬에서 개최

되어 최철용 목사(시온교회)가 신임총회장에 당선되었으며, 목사부총회장에 박삼열 목사(송월교회), 장로부총회장에 정석방 장로(대구동흥교회)가 당선되었다.

### 예장고신총회 제66회 총회장 배광호 목사 당선

예장고신총회는 제66회 총회를 20일 3시 천안고려신학대학원대학교에서 ‘응답하자! 교회개혁’ 주제로 개최되어 배광호 목사(동부산노회)가 총회장에 당선되고 △목사부총회장 김상석 목사(남부산노회), △장로부총회장 이계열 장로(동서울노회), 임원을 선임했다.

기침 제106차 총회장에 유관재 목사 당선

지난 9월 19일(월) 인천 송도컨벤시아에서 제106차 정기총회를 개최한 기독교한국침례회(이하 기침)가 총회 둘째 날인 20일 신임총회장에 유관재 목사(일산 성광교회)가 선출되고 총무 조원희 목사가 재선에 당선됐다.

### 예장개혁(연지동), 101회 총회장에 박옹 목사 당선

평안히 든든히 서가는 총회를 주제로 제101회 정기총회가 지난 9월 20일 중앙교회에서 개최되어 박 옹 목사를 만장일치 박수로 총회장에 선출했다. △ 부총회장 이계석 목사, 장로부총회장 이강국 장로(인경노회), 이외 임원선출이 이루어졌다.

## 예장총회(합동선목) 101회 총회장 김국경 목사 선출

예장총회(합동선목)는 ‘세상에 희망을 주는 총회’를 주제로 지난 19일 -20일 서울 중랑구 목양교회에서 제101회 정기총회를 개최하여 총회장 김국경 목사가 재선되었다.

선출된 신임원은 다음과 같다. △총회장 김국경 목사(목양교

회), 부총회장 유영자 목사(충만교회), 부총회장 고재운 목사(삼익교회), 부총회장 문영호 목사(연세교회), 부총회장 오운주 목사(예수생명교회), △서기 박동만 목사(실로암교회), 부서기 신영자 목사, △회계 박찬봉 목사(승리교회), 부회계 신희숙 목사(해브론

교회), △회복서기 문순애 목사(참소망교회), 부회복서기 김종열 목사(다사랑교회), △총무 이유은 목사(행복샘교회), 부총무 유연순 목사(은혜교회), △기획실장 운영순 목사(예수생명교회).

제101회기를 맞은 선목총회는 종교개혁500주년을 맞은 2017년, 교역자 세미나와 학술 세미나 등 산하 목회자들의 영적 갱신을 위한 사업계획을 세웠다. 이외에도



6·25 구국기도회, 신학생 연합 체육대회, 신학생과 교역자 수련회 등 다채로운 사업들을 진행할 예정이다.

## 대한성서공회 번역실장에 이두희 박사 부임

이두희 박사(사진)가 대한성서공회 번역실장으로 부임하였다.

이두희 번역실장은 서울대학교(독문과)와 동 대학원(서양고전학협동과정)과 장로회신학대학교 신대원(M.Div.)과 프린스턴 신학교(Th.M)를 졸업 하고, 미국 GTU(Graduate Theological Union)에서 신학 전공으로 박사 학위(Ph.D.)를 받았다. 장신대, 연세대, 서울대, 명지대, 서울장신대 등에서 강의를 하였으며, 그동안 새문

안교회 협동목사로 섬기면서 장로회신학대학교 조교수(신학학)로 재직해 왔다.

이두희 박사는 본 공회 번역실 책임자로서 <새한 글성경전서>(가칭) 구약책임번역자인 박동현 박사(삼임번역자문, 성경원문연구소장)와 함께 <새한 성경>(가칭) 번역 진행을 담당하게 될 것이다.



## 조운선 문체부 장관, 한기총 내방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 조운선 장관은 지난 13일(화) 오후 한국기독교총연합회(이하 한기총)를 내방하고 대표회장 이영훈 목사와 환담을 나눴다. 이 자리에는 문체부 원용기 종무실장과 한기총 박종선 사무총장 등이 배석했다.

대표회장 이영훈 목사는 “평창 동계 올림픽을 앞두고 중요한 시기에 문체부 장관으로 임명 되어 중책을 맡으신 것 같다”며 “기독교를 비롯한 종교계와 잘 협력하여 대한민국 문화와 체육, 관광의 발전에 크게 이바지하는 장관이 되기를 바라고, 대통령을 보필하는 데도 역할을 하시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조운선 장관은 “교계의 지원은 항상 든든한 힘이 된다. 정책들과 추진 사업들을 꼼꼼히 챙기고 종교계와도 항상 소통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대표회장 이영훈 목사는 종교



지도자협의회를 통한 종교간 대화나 자문, 협력방안 마련에 대한 부분을 제시했고, 종교인 과세, 할랄식품, 동성애에 대한 문제점들을 교계의 입장에서 전달했다. 또한 다문화 가정이나 노숙인 등 나눔과 섬김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지원 방법을 설명하고 협력

을 요청했다. 또한 이영훈 대표회장은 문체부 산하 종무실이 종교청 정도로 격상되어 종교에 대한 다양한 의견과 목소리가 수렴되고, 정책적으로도 충분히 반영될 수 있기를 희망한다고 전했다.



## 작가예세이 《모험》

내가 물속에 뛰어들어가는 모험을 즐기는 이유는 희열과 가치를 얻기 때문이다. 모험은 믿음이 있어야 가능합니다. 그것을 즐기려면 반드시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장비를 믿어야 하고 기술을 확신해야 하고 배움에 대한

신뢰가 있어야 가능합니다. 신앙 역시 모험입니다. 성경이라는 장비와 신학이라는 기술과 그리스도로부터 배움으로 얻어지는 믿음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나는 모험위에 내가 가진 모든 것으로 도전을 합니다. 그 뒤

에 얻어지는 것은 세상 사람들이 갖지 못하는 희열과 가치를 얻기 때문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보지 못하는 행복한 세계를 볼 수 있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그 모험을 즐기기 위해 스쿠버 장비를 점검하는 것처럼 오늘날 내 신앙을 점검해 봅니다.

사진작가 대한기독사진가협회 총회회장 도도 이상중 목사

절이 변하여 교회가 된 성령이 역사하는 교회  
날마다 치유와 회복이 일어나는 교회 Come & See



담임목사 김창통



성담목사 박영미



경기도 화성시 정남면 관항길242번길75  
전화: 010-7172-0675, 011-204-6795  
팩스: 031-366-2235 홈페이지: www.gdfc.kr

## 오순절교회협의회 성서하나님의교회

(the Church of God of Prophecy Korea) (이천성서수원원)



원로목사 이철재 감독



담임목사 이정민

생명의 양식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함이 있느니라(고후 3장 17절)

| 예배 안내    | 요일      | 시간       | 장소      |
|----------|---------|----------|---------|
| 주일 예배    | 주일      | 오전 11:00 | 본당 (2층) |
| 기도원 예배   | 주일      | 오후 3:00  | 푸른초장기도원 |
| 유초등부 예배  | 주일      | 오전 9:00  | 기도실     |
| 중고등부 예배  | 주일      | 오전 9:00  | 지하성전    |
| 청년대학부 예배 | 주일      | 오후 2:00  | 본당 (2층) |
| 새벽 기도회   | 매일(월-금) | 오전 6:00  | 지하성전    |
| 수요기도회    | 수요일     | 오후 8:00  | 지하성전    |
| 금요기도회    | 금요일     | 오후 9:00  | 지하성전    |
| 중고등부 기도회 | 토요일     | 오후 4:00  | 기도실     |
| 2시 기도회   | 매일(월-토) | 오후 2:00  | 기도실     |

† 이 나라 이 민족을 무당사상으로부터 출애굽하자!

서울시 광진구 화양동 127-3호 [02]465-4090  
성서수원원(이전 031-634-3590)  
부설 : 새생명어린이집 [02-464-3107]

## 대한예수교 장로회 행복샘교회

### 기적의 치유집회



강사 박수영 목사

- 한국어목성장학술원장 원장
- 지저스타임즈 대구지사장
- 경북대학교병원교회원목위원
- 행복샘전인치유센터 원장
- 동부노회 노회장
- 행복샘교회 담임목사

#### 집회 고침받은 내용

- ☆ 최병옥 : 심장병으로 숨막히고 쥐어짜는 고통에서 고침받음
- ☆ 류정호 : 만성변비로 가야기독대학병원에서 퇴원 장애준비중 고침
- ☆ 김소영 : 류머티즘관절 평생지병 집회중 선포 기도로 고침받음
- ☆ 남영수 : 제생불량성빈혈 경대병원 매주 수혈받으며 투병하다 고침
- ☆ 김영자 : 만성두통과 불면증으로 10년 동안 고생하다 고침 받음
- ☆ 박수영 : 30년동안 피부병으로 고통받다 치료받은 이것이 나의간증
- ☆ 강복희 : 뇌경색으로 왼쪽 전신 마비되어 투병하다 집회중 고침받음
- ☆ 김복자 : 고혈압 20년 지병 정상으로 고침 받음

#### 예배 시간 안내

|                 |                |
|-----------------|----------------|
| 주일오전예배 오전 11:00 | 수요기도예배 오후 7:00 |
| 주일오후예배 오후 2:00  | 금요치유예배 오후 8:00 |
| 주일학교예배 오전 9:00  | 새벽 기도회 오전 5:00 |
| 청소년부예배 오후 2:00  | 중보기도모임 매일 8:00 |

대구광역시 동구 요목로 36-5(요목동) 3층 우)41232  
☎ 053-752-8238 010-8537-8291

## 대한예수교 장로회 동천교회



담임목사 이 규 필  
(합동보수 총회장)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라다  
(역대상 16:34)

#### 예/배/시/간/안/내

| 주일 대 예배 | 오전 11:00 | 영 아 부     | 오전 11:00                 |
|---------|----------|-----------|--------------------------|
| 주일오후예배  | 오후 2:00  | 유 치 부     | 오전 9:00 오후 1:20          |
| 수요 기도회  | 오후 7:30  | 유 . 초 등 부 | 오전 9:00 오후 1:20          |
| 금요삼아기도회 | 오후 9:00  | 중 . 고 등 부 | (주일)오전 11:00 (토) 오후 6:00 |
| 구역예배(금) | 각 구역별로   | 청년 . 대학부  | (주일)오전 11:00 (토) 오후 6:00 |
| 새벽기도회   | 오전 5:00  | 성령충만기도회   | (수) 오후 7:30              |

서울시 금천구 시흥대로 153길 94  
☎02)854-1326

사)한기보험 대표회장 지왕철 목사 일행 진리총회 내방

사)한국기독교보수교단협의회 대표회장 지왕철牧사는 상임회장 한홍교 목사, 사무총장 민정식 목사를 대동하고 지난 28일 오전 11시 경기도 의왕시 계원대학로 위치한 대한예수교장로회(진리)총회 총회장 장한국 목사를 내방했다. 대한예수교장로회진리총회 총회장 장한국 목사가 임원들과 같이 한기보험 대표회장 지왕철 목사를 방문하고 예상진리총회 교단 가입서류를 접수하고 많은 덕담을 나누었다.

목사, 부회계 김정미 목사 등이 동석하여 상견례를 가졌다. 지왕철 대표회장은 교단가입을 환영한다면서 한기보험의 정체성에 대해 설명하고, 상호 협력하여 연합단체로서 뜻을 같이하여 적극 협력해 줄 것을 주문하자 진리총회 장한국 총회장은 최선을 다해 한기보험에 협력해 나갈 것을 약속했다.



예장총회(호헌) 총회장에 신용철 목사 선출

더 과실을 맺게 하시는 가지와 같이 되려 한다

예장총회(호헌)은 지난 9월 26일 제101회 정기총회를 공주 유스호스텔에서 151명의 총대들이 참석한 가운데 총회장에 신용철 목사, 부총회장에 도용호 목사, 여정택 목사, 김종전 장로 등 신 임원진을 선출했다. 제101회 정기총회는 경배와 찬양(서해노회 찬양단)에 이어 제1부 개회예배는 부총회장 도용호 목사의 사회로 시작하여 부총회장 여정택 목사의 호헌선언문 낭독, 전 부총회장 신은학 목사의 기도, 총회장 양연길 목사의 (히 12:2) '예수를 바라보자'는 제목으로 우리는 눈앞에 현상만 바라보지 말고 믿음의 주를 몸과 마음을 바쳐 바

라보자는 말씀을 전하였으며 이어 부총회장 도용호 목사 광고 후 증경총회장 안봉용 목사의 축도로 마쳤다. 신임 총회장 신용철 목사는 총회장에 선출된 작은 자로써 부족 한 마음으로 소신을 가지고 열심으로 과실을 맺는 가지와 같이 되려 합니다. 과실을 맺는 가지에게 원하시는 것은, 순전한 마음으로 인내하여 나무에 꼭 붙어 있어야 하는 것이며, 수고하여 무성한 잎과 아름다운 꽃을 피어야 하며, 고난을 이겨 아름다운 과실을 맺어 주님께 영광을 돌려야 한다고 전했다. 또한 교단산하 지 교회들이 변

화되고, 발전해야 한다며 지 교회가 살아야 교단이 살고, 교단이 살아야 한국교회가 산다, 외적으로는 교단위상확립. 내적으로는 교단의 정체성회복을 위하여 힘쓰겠다면서 교단이 외적으로는 해외선교는 물론 교회연합과 일치 운동을 활발하게 진행하겠다면서, 변화하는 교단의 모습을 보여주고 한기총을 비롯한 연합기관단체에서 실시하는 모든 사업에 적극 참여, 한국교회 성장을 위해서 기여하겠다고 하였다. 끝으로 한국교회 발전을 위해 더욱더 노력하고, 교단은 물론 교회 성장시대를 열어 금년을 호헌총회의 위상확립과 교단의 정체성회복의 원년으로 삼겠다고 말했다. 제101회기 임원진은 다음과 같다.



▲ 총회장 신용철 목사, ▲ 부총회장(총무 겸) 도용호 목사, 여정택 목사 김종전 장로, ▲ 서기 유동열 목사, 부서기 김성수 목사 ▲ 회의록서기 신상희 목사, 부회의록서기 김종진 목사 ▲ 회계 구한나 목사, 부회계 신정혜 목사 ▲ 감사 정진만 목사, 윤국희 목사.

예장(예측)총회 제3회 총회장 광영민 목사 연임

동성애 목회자 금지조항 헌법에 명시키로 하다



대한예수교장로회(예측)총회(총회장 광영민 목사)는 지난 9월 26일(월) 오전 11시에 총회장 광영민 목사가 시무하는 인천 남구 송의동 소재 등불교회에서 "제3회 정기 총회"가 개최되어 총회장 광영민 목사가 연임됐다. 이날 총회는 1부 예배, 2부 의사진행, 3부 애찬 순으로 진행하였다. 1부 예배는 서기 김성기 목사의 사회로 진행되고, 영안교회 김정남 목사가 대표기도를, 총대 송미순 목사가 특송을, 총회장 광영민 목사가 설교와 축도를, 서기 김성기 목사가 광고를 하였다. 이날 광 총회장은 제2:10절을 본문으로 "죽도록 충성하라!"는 제목의 설교에서 '죽도록'이라는 단어 속에는 세 가지 의미가 담겨 있는데, 첫째는 '생명 다하는 그날까지' 변치 않고 한결같은 믿음의 소유자들이 되기를 바라며, 특히 우리 교단은 '무정년제'를 시행하고 있기에 하나님앞에 설교하다가, 무릎 꿇어 기도하다가, 전도하다가 하나님

앞에 부름 받는 것을 최고의 영광으로 생각하라고 하였다. 둘째는 "사력을 다해"라는 의미가 있는데, 세상 사람들도 무슨 일을 할 때 죽을힘을 다하는데 목사는 더욱 더 힘쓰고 최선을 다해야 하나님 앞에 설 때 칭찬 듣지 않겠냐 하였다. 아울러 총회를 위하여 총대들께서도 사력을 다해줄 것을 부탁하였다. 셋째는 "순교각오"라는 의미가 있는데, 과거 그리스도인들과 목회자들이 순교신앙을 가지고 신앙을 지켜왔고, 기독교회가 부흥하였음을 알아, 우리도 그 순교 반열에서 이탈되지 않도록 늘 순교신앙을 고수해야 한다고 하였다. 끝으로, 사설 '총성'이라는 말은 '죽도록'이라는 말이 부터야 더 빛이 난다며 총대원들이 총회를 위하여 혼신의 힘을 다한 결과 3년밖에 안된 교단이지만 계속해서 꾸준히 성장하고 있음에 먼저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총대들께 감사한다고 전했다. 2부 회무처리에서는 광영민 총회장이 의사진행을 하였으며, 주요 안건 처리로는 교단 기본 신앙 노선 중에 하나인 "동성애 반대"에 대한 내용을 더 구체적으로 논의하였으며, 교단 헌법에 관련 법규 중 '목사의 자격' 동성애자 목사임직 및 목사가임 불허, '목사의 직무'에 동성애자에게 세례 및 주례 거부, '권징조례'에 목사의 동성애 행위 발견 시 3인 이상의 증인이 있어야하며, 목사의 제명하는 것을 가결하였다. 예측총회 신임원은 총회장 광영민 목사, 사무총장 송미순 목사, 서기 및 회의록 서기 김성기 목사, 재무 김정남 목사가 각각 선임되었다. 인천지사 취재부 모성훈 기자

GOODTV '글로벌청년창업오디션 시즌1' 10월 22일 결선

GOODTV(대표 김명전)와 KAIC 글로벌창업보육센터(대표 데이비드 욱)가 공동주최하는 '글로벌청년창업오디션 시즌1' 결선이 10월 22일 오후 1시 본월드미션 아트홀(서울 염창동)에서 개최된다. 글로벌청년창업오디션은 차세대 비즈니스 리더를 발굴하고, 발전 가능성을 지닌 크리스천 청년들에게 창업의 기회를 제공하고자 기획됐다. 지난 6월 18일 새중앙교회(담임 박종식)에서 열린 예선에서 사전심사를 통과한 20개 팀이 참가해 열띤 경쟁을 치렀으며, 이 중 11개 팀이 결선에 진출했다.



특별히 이번 오디션에는 데이비드 욱 대표를 비롯해 이강락 대표 (KR컨설팅), 노시청 회장 (필룩스), 최복이 대표 (분죽), 김주운 대표 (스마트워치 DOT),

KAIC글로벌창업보육센터 데이비드 욱 대표는 "크리스천 젊은이들이 하나님이 주신 비전을 가지고 현장에서 지속 가능한 비즈니스를 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이번 오디션을 통해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키는 젊은 사업가들이 배출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이번 오디션 최종 우승팀에게는 상금 1천만 원과 함께 이스라엘 방문 및 CEO 포럼 참석 등의 기회가 주어질 예정이다. 글로벌청년창업 오디션 예선부터 결선까지의 모든 내용은 10월 23일로 예정된 가을개편 이후 TV와 GOODTV홈페이지(www.goodtv.co.kr)와, GOODTV 유튜브 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꿈이 이루어지는 교회

기도하는대로 꿈꾸는대로  
말하는대로 이루어지는 2016

대한예수교장로회

꿈의교회

DREAMS COME TRUE...

www.mokpodream.org

담임목사 이요셉

2016년 한사람이 한명 이상 꼭 전도합시다.

| 예배안내      |              |                       |                 |
|-----------|--------------|-----------------------|-----------------|
| 주일예배      | AM 11:00     | 청년대학부 예배 토요일 PM 06:30 | 새벽 기도회 AM 05:00 |
| 주일반 찬양 예배 | PM 07:30     | 어린이 예배 일요일 AM 08:30   | 오후 기도회 PM 03:00 |
| 삼일반 예배    | 수요일 PM07:30  | 중고등부 예배 일요일 PM 02:00  | 저녁 기도회 PM 09:00 |
| 금요철야예배    | 금요일 PM 09:00 |                       | 철야 기도회 AM 00:30 |

주소:전남 목포시 산정로322-3(연산동) 전화/ 061) 277-0496 · 차량운행 : BUS 3번, 60번, 61번, 600번





# 어르신 천국가요, 찬양대회 열고 삼계탕 파티



대한예수교 영광교회 조강수 목사는 성도들과 함께 할아버지 할머니 350~400여명을 모시고 지난 9월 22일 오전 11시부터 오후 2시까지 2층 성전에서 찬양대회를 열고 정성을 다해 마련한 삼계탕을 대접하자 맛있게 잡아 뽀뽀하며 기쁨을 감추지 못했다.

영광교회 담임 조강수 목사는 많은 할아버지 할머니에게 큰 인사를 하면서 어르신 한분 한분이 나를 낳아주신 아버지처럼 어머니처럼 하늘나라 가는 그날까지 정성을 다해 모실 거라면서 100세가 넘으신 어르신들의 손을 꼭 잡고 효도하는 마음에서 위로의 말씀을 전하고, 조 목사는 나는 행복합니다. 어르신들을 아버지 어머니로 모시고 천국가게 되었으니 참 기쁘고 감사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며 이에 대해 자세히 설명했다.

이어 찬양대회가 시작되어 어르신들 각자가 그동안 열심히 배우고 연습을 하시기에 찬양을 부르는 모습은 진지했다. 나뭇대로 실력발휘를 하시기에 많은 박수갈채를 받았고, 모두가 하나가 되어 손뼉을 치며 기쁨의 한마당 축제의 장이 되었다.

영광교회 조강수 목사는 총성봉사로 주의 일에 동참하고 있는 장로들, 권사, 성도들과 뜻을 같이하여 즐겁고 기쁨마음으로 오시는 할아버지 할머니들을 자신을 낳아주신 아버지 어머니처럼 섬기고 있기에 매주 목요일 국수, 주일은 식사, 매월 한 차례씩 어르신들을 모시고 찬양대회와 사도신경 외우기 대회, 성경말씀 외우기 대회를 개최하여 1등 10만원, 2등 5만원, 3등 3만원, 이 외에 참석한 노인들에게 3,000원의 교통비 및 푸짐한 선물을 나누어 드리고 있다.

계다가 찬양대회가 끝나고 돌아

가실 때는 조강수 목사는 성도들과 함께 일일이 손을 꼭 잡아드리며 쌀과 선물을 나누어 드리고 있다. 각자 선물로 받은 쌀과 밀가루 설탕과 과자 봉지를 들고 함박웃음을 지으시며 손을 흔들며 가실 때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는 어르신들의 모습이 너무도 아름답다. 영광교회는 매주일 100세가 넘으신 어르신과 많은 어르신들이 참석하셔서 주일예배를 함께 드리고 있다.

조강수 목사는 많은 돈을 드려 경노잔치를 하는 목적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데 있다. 많은 노인들이 예수님을 영접하고 찬양을 배우고 사도신경을 배우고 성경구절을 외워서 경연대회를 갖는 목적도 오직 영혼구원에 있으며, 오랜 세월 중단 없이 찬양대회를 통해

기쁨을 감출 수 없다고 말한다. 그러면서 더 많은 할아버지 할머니를 모실 수 있도록 기도를 부탁했다.

조강수 목사는 과거에 너무도 어렵게 살아왔고, 산전수전 다 겪어보았기에 어렵고 배고픔의 고통을 잘 알고 있다. 개척교회를 했을 때도 錢이 없어서 배고픔과 고통을 겪어보았다. 그래서 하나님 이 배고픔의 고통에서 벗어나게 해달라며 부자목사가 되길 원해서 눈물을 쏟으며 기도드린 결과 오늘의 영광교회로 성장했으며 어르신들을 섬기는 이 일은 하늘나라 가는 그날 까지라고 했다.

그래서일까 조강수 목사는 아직도 집이 없다. 교회 강대상 밑에서 기도하는 일 외에는 자신의 집이 없다. 있다면 교회 집무실 뒤 침대 하나다. 오늘도 내일도 성도들과 함께하며 성도들을 위하여 하나님의 나라 확장을 위하여 기도하는 일처럼 기쁜 일이 또 어디 있겠느냐는 것이다. 그래서인지 영광교회는 엄청난 큰 교회로 성장할 준비가 되어있다.



해 국수봉사를 통해 어르신들이 믿음을 갖게 되었고, 신앙이 자리면서 교회에 출석하는 모습에서 너무도 가슴이 뻘뻘하면서 감동이 되어

하는 일처럼 기쁜 일이 또 어디 있겠느냐는 것이다. 그래서인지 영광교회는 엄청난 큰 교회로 성장할 준비가 되어있다.

# 지금도 한국교회에 信望愛를 갖춘 聖徒가 있다

최근 기독교방송이 인천영광교회 담임 조강수 목사를 음해한 편파성 보도로 큰 타격을 가하자 KBS, MBC, SBS 등도 앞 다투어 취재를 하고 방송되었다. 전국에서 이 보도를 접하고 목회자들은 조 목사를 그래도 신뢰하며 위로하는 전화가 폭주했다. 하지만 어느 목회자들은 조 목사는 목회는 끝났다며 비방을 했다.

한마디로 엄청난 고통의 쓰나미가 지나면서 같은 지역에서 목회를 하는 모 목사는 방송을 접한 후 영광교회를 섬기고 있는 모 권사를 만나 권사님 큰일 났네요 이제 조 목사가 목회하기도 어렵게 되었네요 하자 이 말을 들은 모 권사는 목사님 저희 성도들은 우리 목사님을 믿기 때문에 누가 뭐라고 해도 우리 성도들은 요동하지 않는다고 대답했다.

그건 사실이다. 영광교회 성도들은 흔들림이 없다. 주일예배에 더 많이 모였으며, 성도들이 하나가 되어 밤낮으로 목사님을 위해 특별 기도회를 정하고 24시간 쉬지 않고 자원하여 교회와 담임목사를 위하여 기도하고 있는 성도들의 의로운 모습을 기자는 보고 있다.

같은 지역에서 목회를 하는 그 목사는 모 권사의 말을 듣고 할 말을 잃었다. 결국 발길을 돌려 얼마 쯤 가다 다시 돌아와서 이렇게 말한다. 권사님 권사님이 섬기시는 인천영광교회 목사님이 너무나 부럽습니다. 하고 돌아갔다는 것이다.

그렇다. 요즘도 이 하늘아래 축복받은 교회가 여기 있다. 한국교회에 서 모델이 되고 있는 축복받은 교회가 여기 있다. 아무리 거센 파도가 엄습하고 환난의 쓰나미가 휩쓸고, 활활고 지날지라도 이에



여 기도하고 있는 성도들의 의로운 모습을 기자는 보고 있다.

같은 지역에서 목회를 하는 그 목사는 모 권사의 말을 듣고 할 말을 잃었다. 결국 발길을 돌려 얼마 쯤 가다 다시 돌아와서 이렇게 말한다. 권사님 권사님이 섬기시는 인천영광교회 목사님이 너무나 부럽습니다. 하고 돌아갔다는 것이다.

그렇다. 요즘도 이 하늘아래 축복받은 교회가 여기 있다. 한국교회에 서 모델이 되고 있는 축복받은 교회가 여기 있다. 아무리 거센 파도가 엄습하고 환난의 쓰나미가 휩쓸고, 활활고 지날지라도 이에

요동치 않고 모여서 기도하는 성도들이 여기 있다.

기자는 이렇게 말하고 싶다. 살아있는 교회, 신나는 교회, 축복받은 교회, 바로 그 성도들, 자랑스러운 성도들이 있기에 조강수 목사는 가장 축복받은 목사일 게다. 인천영광교회가 자랑스러운 것은 신앙애를 갖춘 교회 신앙애를 갖춘 성도들이 보석처럼 빛이 난다. 영광교회와 같은 교회와 성도들이 있는 한 한국교회는 그래도 주님의 은혜로 소망이 있다. 반드시 부흥의 역사는 일어난다.

# 본사 언론부흥사협의회 단합대회 가져

지저스타임즈 본사 언론부흥사협의회(이사장/대표회장 조강수 목사)는 지난 달 1박2일 일정으로 강원도 강릉 산성그리스도의교회(삼일이사 최낙현 목사)에서 세미나를 통해 단합대회를 가졌다.

사무국장 박영민 목사의 진행으로 첫날 이사장 겸 대표회장 조강수 목사는 개회예배에서 창 45:4-8절의 말씀을 인용“꿈은 이루어진다!”라는 제하의 말씀을 선포했다. 조 목사는 꿈을 이루어려면 성령의 능력으로 미움, 원망을 과감히 깨트려야 하며, 나를 미워하는 사람, 나를 버린 사람을 용서해줄 수 있어야 하는데, 그 비결은 “예수님처럼 용서”라고 했다. 사람을 보지 말고, 사람위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손을 보라고 했다.

저녁에는 세미나를 통해 강사로 나선 대표회장 조강수 목사는 요1:12-13절을 주제로 “영적권세”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영적권세를 가지려면 우선 나는 누구인가?”를 바로 깨달아야 하고



내가 누구인가를 바로 알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확실히 알아야 하는데, “내가 믿는 하나님은 온 우주의 주인이시요 나는 그분의 자녀다”라는 확고부동한 신앙으로 나타나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튿 날 아침 강릉시내를 관광하고, 본사 문서선교방송을 위한, 언론부흥사협의회가 전국적으로 활성화되길 뜻을 모아 전진할 것을 다짐하고, 친교를 다지는 가운데 각자 목양지를 향해 발길을 돌렸다.

한편 정대성 목사(삼성중앙교회 / 부이사장) 기념타을 40장,

이사장 조강수 목사(대표회장 / 영광교회) 비누세트 40박스, 금일봉 및 회식을, 사장 소진우 목사 금일봉을, 송미순 목사(운영이사 / 시내가교회) 교나연 집사 등이 물병증정, 강요셉 목사(부이사장 / 천안순복음축복반는교회) 포도들, 최낙현 목사(삼일이사 / 산성그리스도의교회) 본당을 세미나실로 제공, 각종 음료와 다과, 잘 익은 옥수수를 찌서 대접하는 등 화기애애한 단합대회였다.

인천지사 박영민 기자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네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와 영광이 네 위에 임하셨음이니라.(사60:1)

❖목사님 집회일정❖

· 8월 22일(월)~25일(목)

· 9월 1일(목)~2일(금)

· 9월 5일(월)~ 8일(목)

· 10월 3일(월)~ 5일(수)

· 10월 17일(월)~ 19일(수)

철원성소기도원

지저스타임즈수양회 특별강사(본지 이사장)

청주금식기도원

백합중앙교회

인천천시화운동저녁집회

교회를 섬기는 사역자

· 부 목사 : 이주홍

· 선교목사: 정기남, 정재진, 노병주

· 협력선교사 : 김종록, 이두원, 차명호, 권오성

· 장 로 : 임청수, 이청옥, 심재현, 김준현, 고재훈

· 심방전도사 : 원명숙

· 교육전도사 : 이민규, 이주영

· 전 도 사 : 양승숙

· 성가 대장 : 박남주

· 지 휘 : 박성진, 왕호정

· 반 주 : 권혜영, 홍은지, 박진주, 이요한

예배시간 안내

주일 낮 예배  
1부 오전 9:00  
2부 오전 11:00

수요 예배  
오후 8:00

금요일 예배  
밤 11:00

주일 찬양 예배  
오후 6:30

새벽 예배  
오전 4:30

주일학교 예배  
주일오후 1:00

학생부·청년부  
연합예배  
(토) 오후 6:00

대한예수교장로회

영광교회

표어 : 창세로부터 주님 재림시까지 세대에서 가장 많은 영혼을 구원하는 교회

당회장 조강수 목사

Pastor Gang Soo Gho

주요교인

주요교인

대한예수교장로회 영광교회

● 주소 : 인천광역시 서구 장고개로 336(구)가좌4동 4-24 ● TEL (032)575-1654 FAX 581-3723 ● http://www.youngkwang.net

· 요한계시록 3장 강해(22)

## 사데교회에 나타난 일곱 영과 일곱 별을 가지신 예수님

1절 사데 교회의 천사에게 편지하라. 하나님의 일곱 영과 일곱 별을 가지신 분이 이 일들을 말씀하시느니라. 내가 네 행위를 아나니 네가 살아 있다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었느니라.

계시록 2장의 네 교회를 거쳐서 다섯 번째 단계인 사데 교회로 올라왔습니다. 2장에서 상고한 것과 마찬가지로 제일 먼저 예수님이 사데 교회에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셨는가를 깨달으면 이후에 무엇을 말씀하시려는 자가 펼쳐집니다. 사데 교회에 예수님이 죽으셨다가 부활하신 분으로 나타나셨습니까.

이는 순교한 자들을 부활시켜 영광을 입혀 주시는 것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퍼가모 교회는 주님이 앙갚 가진 칼을 가지고 나타나셨습니다. 사탄의 위가 있는 곳에서 순교하는 과정 중에 나타낸 것입니다. 두아티라 교회는 주님이 불꽃같은 눈으로 나타나셨습니다. 이세벨같이 음녀로, 사탄의 깊은 것으로 유혹하는데서 성별되어 바로 서는 자와 그렇지 않은 자를 가려내셔서 올바르게 성별된 자는 철장권세와 새벽별을 주시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러면 사데 교회에 일곱 영과 일곱 별을 가지신 분으로 나타났다는 것은 무엇을 말씀하시나요? 금촛대 교회인 다섯 번째 교회의 수준까지 올라왔는데 '일곱 영 → 두 증인 → 철장권세' 식으로 정형화되고 고정되어 있으면 안 됩니다. 어떤 금형을 떠서 그 금형 속에 박아놓는 형태의 신앙 지식, 신앙생활은 바람직하지 않는 것입니다. 근본적인 것부터 알고 바로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이 일곱 영을 가지고 나타났다는 것은 일곱 영을 부여주시기 위해서입니다. 우리에게 성령을 부여주시는 분은 예수님입니다. 우리에게 성령을 부여하신 주님을 우리는 은혜의 주님이라고 부릅니다. 성령 부여 주시는 것이 은혜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본문에 우리에게 일곱 영을 부여주시는 주님이 계십니다. 우리에게 왜 일곱 영을 부여하시나요? 이는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는 안 되고 주님의 힘과 능력, 은혜로만 되게 하기 위함입니다.



장한국 목사  
주사랑교회 담임

속 4:6에 하나님이 스가랴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성전 짓고 일하는 것이 너희 힘으로도, 능력으로도 안 되고 오직 나의 영으로만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나의 영”이 성령이고 이 말씀과 연관하여서 속 4:10에 일곱과 더불어 있는 스룹바벨의 손에 있는 다림줄을 보리라 그 일곱은 주의 눈들이요, 이 일곱 눈은 계 5:6에서 일곱 영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두 올리브 나무 가지가 하나는 총독 스룹바벨이요 나머지 하나는 대제사장 여호수아를 가리키는데 그들이 금기름으로 발리워졌습니다. 이 금기름은 무엇을 말씀하시나요? “일곱과 더불어 있는 스룹바벨”이 곧 금기름으로 발리운 자요, 이는 일곱 영으로 충만함을 받은 두증인들을 계시하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성전 짓는 일을 하는 것은 2차 문제이며, 1차는 힘으로도 되지 않고, 능력으로도 되지 않고 누구의 힘으로 되는가? 스룹바벨과 여호수아의 힘으로 되어 있는데 그 힘은 하나님의 힘인 일곱 영으로 되어 있다는 말씀입니다.

이와 같이 일곱 영을 부여주시는 예수님이 일곱 영을 붙잡고 사데 교회에 나타났다는 것은 근본적으로 100% 하나님의 힘과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로 된다는 것을 나타내신 것입니다. 곧 일곱 영의 힘으로 되게 하고, 일곱 영의 역사로 되게 하십니다. 여기서 일곱 영은 당연히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자신과 관계없이 단지 일곱 영을 가지신 예수님으로만 보는 분들은 아직도 자기 힘으로, 자기 능력으로 하거나 또는 일을 전혀 하지 않고 있는 자라고 봐야 될 것입니다. 이러한 부분을 주님은 전부 청소시키기 위해서 일곱 영을 가지신 분으로 나타내신 것입니다.

또한 주님이 일곱 별을 가지고 나타나셨습니다. 일곱 별은 하나님의 종들을 가리킵니다. 이들은 계 1:1의

“그의 종들”이요, 금촛대 교회의 사자요, 환란 날 사역할 하나님의 종들이며 사데 교회의 종입니다. 주님이 일곱 별을 가지고 나타내신 것은 일곱 별 되게 하려는 것이 아니라 일곱 별을 가지고 나타나셨으므로 일곱 별이 실존하고 있는 것입니다. 일곱 별은 “그의 종들”이므로 숫자로 따지면 일곱 명이 아니라 많은 수를 가리켜 일곱 별이라고 통칭한 것입니다.

일곱 별인 하나님의 종을 하나님 즉, 주님이 붙잡고 계십니다. 그러면 일곱 별이 넘어질 수 있나요, 없나요? 주님이 붙잡고 있는 가운데서도 넘어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종이 넘어질지라도 주님의 손이 그를 놓지 않으면 다시 일으켜지는 것입니다. 이것이 일곱 별을 붙잡고 계신 주님입니다. 지금 그의 별이 넘어져 가고 있는 지 아니면 죽어가고 있는지 뭔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일곱 별을 가지신 주님이 나타내신 것입니다. 그 별이 넘어졌으면 일으켜 세우고, 죽어가는 별이 있으면 살리는 분이 일곱 별을 가지신 주님이시라는 것을 강력하게 계시한 것입니다.

롬 14:3-4에 남의 종을 판단하는 너는 누구냐? 그가 서거나 넘어지는 것이 자기 주인에게 달려있고, 반드시 그 종이 서게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일으켜 세우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앞 구절에서 믿음이 연합하여 현재는 고기를 먹지 못하고 채소만 먹는 종이러나 하나님이 다시 세우실 수 있다는 말씀으로 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넘어져도 주님과 함께 넘어지는 것이며 반드시 주님이 일으켜 세우신다는 말씀입니다.

주님이 일곱 영과 일곱 별을 붙잡고 나타난 것은 1절 이후 사데 교회에 전개되고 있는 상황에 대해서 주님이 조치를 취하시려고 나타난 것입니다. 즉 앞서 살펴보았듯이 주님이 일곱 영을 가지고 사데 교회에 나타내신 것은 일곱 영을 부여하기 위함인데 그 대상이 사데 교회의 평신도나 현재 조직 교회상의 목회자가 아닌 환란 날에 쓰실 “그의 종들” 곧 사데 교회의 사자에게 일곱 영을 부여하기 위함입니다. 이는 일곱 영의 힘과 능력으로 살게 하는 것을 말합니다.

〈다음호에 계속〉

▣ 목양칼럼

## 죄의 세력에서 벗어나려면

사도 바울도 이러한 원리를 깨닫고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치 아니하는바 악은 행하는도다 만일 내가 원치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롬 7: 19~20).

어불성설 같지 않습니까? 분명 자신이 원하는 바 선은 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치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면서 도만 일 자신이 원치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가 자신이 아니요 자신 안에 거하는 죄라고요? 이 고백이 사도 바울의 고백이 맞습니까? 네! 바로 사도 바울의 고백입니다. 죄에 대해 너무나 바른 이해를 가지셨기 때문에 이와 같은 고백을 한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린 의에 대해서 살았습니다. 사도 바울은 주의 십자가의 공로와 자신의 신분을 누구보다도 잘 알았기에 이러한 뛰어난 고백을 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이러한 실패의 모습으로 인해(원하는바 선은 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치 아니하는바 악을 행하는) 여태껏 자신을 때리고 찢고 갈등하며 고통 가운데 있지 않았습니까? 사탄은 바로 이것을 노렸습니다. 이로 인해 우리의 성장을 늦추게 하므로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보다는 자신의 의지로서 계속하여 이미 주님께 패한 죄와 싸우게 하므로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것을 지연시켰습니다.

40일 금식을 마친 주님께 마귀가 한 시험은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어든 명하여 이 돌들이 떡덩이가 되게 하라”는 시험이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네 스스로 네 존재를 증명해 보라는 자아를 부추기는 유혹이었습니다. 하지만 주님은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고 하시며 자기 스스로 자신을 증명하지 않고 도리어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므로 마귀를 물리치셨음을 밝히다.

마귀와의 싸움은 자신의 능력과 마귀와의 능력 대결이 아닌 진리(하나님을 의지하는) 대결임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는 자기가 능력자가 되면 마귀하고 싸워서 이길 수 있다는 착각에 빠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능력



조영만 목사  
인천시온교회  
JNTV운영이사

을 받고자 얼마나 노력을 합니까? 여러분! 우리의 능력은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며 그분을 믿는 믿음입니다. 이미 우리 안에와 계신 주님을 믿고 의지하는 것이 우리의 능력이고 원수마귀를 이기는 비결입니다. 하지만 대부분이 주님을 의지하지 않고 자기 스스로 능력을 키워 마귀와 싸우려고 합니다. 그러나 이미 이 싸움은 패배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고 진리를 의지하므로 마귀를 대적할 때만이 참된 승리가 있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도 자기 스스로 자신을 증명하고자 죄와 싸운다면 이미 우리는 패배한 것입니다. 진정한 승리는 진리 되시는 주님을 의지하므로 그 안에서 안식함에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 안에 거하는 죄를 자신과 별개로 두므로 승리 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원하는바 선은 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치 아니하는바 악을 행하는 주체를 우리 안에 거하는 불순물, 곧 죄로 여기지 않고 자신으로 여기므로 원수마귀가 거할 수 있는 근거를 제공했던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원하는바 선은 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치 아니하는바 악을 행하는 주체를 바로 자신이라고 여겨 갈등과 괴로움을 겪는다면 이와 같은 불신앙의 죄를 범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전 아직 새로운 피조물이 아닙니다. 전 아직 거듭나지 못했습니다. 전 아직 옛사람이 죽지 않고 새사람이 되지 못했습니다. 전 여전히 마귀 자식이고 하나님의 자식이 아닙니다. 제 죄는 주의 보혈로도 씻지 못해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저는 아직 죄에서 해방되지 못했습니다.” 이러한 불신앙의 죄로 인해 죄는 우리를 떠날 수 없고 여전히 우리 위에 왕 노릇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이 이미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고 거듭났고 옛 사람이 죽었으며 이미 새사람이 된 것을 알았습니다. 또한 자신이 이제는 마귀 자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식이 되었고 자신의 모든 죄가 사함 받고 모든 죄에서 구원을 받고 죄의 세력과 실존에서도 해방되었음을 알고 믿었으므로 원하는바 선은 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치 아니하는바 악을 행하는 주체를 자신으로 여기지 않고 자신 안에 있는 불순물, 곧 죄로 여겼습니다. 이 믿음으로 인해 그는 모든 죄와 죄의 세력으로부터 구원을 얻고 승리하는 대사도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도 죄에서 해방 받기 위해서는 이러한 사도 바울의 고백을 깨닫고 죄를 대적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죄에서 해방시키신 방법을 알지 못하고 자신의 방법으로 죄를 벗고자 했기에 많은 시간이 지체되었습니다. “내가 증거하노니 저희가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지식을 좇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를 복종치 아니하였느니라”(롬 10 : 2~3).

가. 결 론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를 죄에서 해방시키시는 진리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박힌 것은 죄의 몸이 멸하여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 노릇 하지 아니하려 함이니”(롬 6:6).

이 말씀에 보면 죄가 나오고 옛사람이 나오고 몸, 곧 죄의 몸이 나옵니다. 예전에 우리의 주인은 죄요, 우리 옛사람은 죄를 사랑하고 섬기는 범죄자요, 우리의 몸은 죄와 옛사람에게 순종하는 종이었습니다.

죄(원수마귀)가 “헐기 내라!”고 명하면, 청지기인 옛사람(겉 사람)이 “네!” 하고 명령을 받아서 죄의 종인 몸에게 “헐기 내라!”고 다시 명하면, 죄의 종인 우리의 몸은 헐기를 내는 죄의 몸이 된 것입니다.

어떤 이는 옛사람을 주관하여 죄를 짓게 하는 죄(원수마귀) 자체를 없애달라고, 죄의 본성을 없애 달라고 기도하지만 이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우리의 경작을 위해 원수마귀를 허락 하시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몸이 신령한 몸이 되어 천국에 갔을 때에야 이 소원은 이루어집니다. 〈다음호에 계속〉

### 대한예수교 장로회 남현교회



담임 이춘복 목사

주 일 예 배 안 내

주일 1부 오전 7시30분  
2부 오전 9시30분  
3부 오전 11시30분  
4부 오후 2시30분

서울시 구로구 경인로346(개봉동)  
☎교회(02)2618-8877-8 당회장실(02)2684-3317

### 대한예수교 장로회 신광교회



담임 전예희 목사

주 일 예 배 안 내

주일 오전 11시  
오후 2시

인천시 부평구 부개1동 396-79  
☎ (032)505-3351

### 시온교회



담임 조영만 목사

주 일 예 배 안 내

주일 오전 11시 30분  
오후 2시 30분

인천광역시 남구 구월동 1146-6 에스파스 B02호  
☎ (070)7501-2584

### 대한예수교 장로회 서울소망교회



담임 서동기 목사

주 일 예 배 안 내

주일 오전 11시  
오후 3시

서울시 노원구 하계동 163-1  
☎ (02)3296-0340

### 대한예수교 장로회 평안교회



담임 강대일 목사

주 일 예 배 안 내

주일 오전 11시  
오후 2시

서울시 중랑구 상봉 1동 40-5  
☎ (02)433-0291(교)

### 대한예수교 장로회 천복복지교회



담임 임상국 목사

주 일 예 배 안 내

주일 오전 11시  
오후 1시 30분  
수요일 오후 7시 30분

대구시 북구 동변동 U선수촌 213-703호  
☎ (053)741-7732, 070-4220-7735

### 대한예수교 장로회 풍성한교회



담임 서재식 목사

주 일 예 배 안 내

주일 오전 11시  
오후 2시

경기도 시흥시 신천동 707-58 401호  
☎ (031)315-8290

### 대한예수교 장로회 실만한물가교회



담임 김진석 목사

주 일 예 배 안 내

주일 오전 9시  
오후 11시  
오후 2시

충북 청주시 상당구 사천동 446-9번지  
TEL 043) 217-0191, 070-8666-0691

### 대한예수교 장로회 수목원교회



담임 최순직 목사

주 일 예 배 안 내

주일 오전 11시, 오후 2시 30분  
수요예배 오후 7:30  
새벽기도회 오전 5시 교육관  
매주 금요일아기도회 밤 9시 4층 교육관

서울시 구로구 오류2동 343번지  
☎ (02)2683-2091

### 대한예수교 장로회 예심교회



담임 사금열 목사

주 일 예 배 안 내

주일 1부예배 오전 10:30  
주일 2부예배 오후 1:30  
수요 밤 예배 오후 7:00  
금요발기도회 오후 9:00  
심야작정기도회 오후 9:00(365일)

주소 : 서울시 송파구 방이동 114-4  
H.P : 010-5225-1253

### (인천)은총 기도원



원장 노은총 목사

집 회 안 내

◇ 매월 첫째 주(월-목) 정기집회 (세계주영광부흥사회 주관)  
◇ 매월 셋째 주(월-목) 정기 성회 (지저스타임즈 언론부흥사협의회 주관)  
◇ 매월 넷째 주(월-목) 정기집회 매월 밤 10시 기도회

주소 : 인천시 남구 주안 2동 486-27(2층)  
H.P : 010-6327-0191, 070-7518-8195

### - 탈 퇴 공 고 -

본 교회와 담임 목사는 대한예수교장로회총회(개혁)와 서울동노회를 탈퇴하기로 결의하고 이에 공고합니다.

2016년 9월 11일  
대한예수교장로회 임마누엘교회  
김종학 목사와 교우일동

[칼럼]

## 행복과 성공

인간은 행복이나 성공의 두 글자에 울고 웃는다. 행복은 무엇이고 성공은 또 무엇인가? 이 두 단어는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는 듯 하지만 엄연히 다르다. 다분히 행복은 정신적인 반면 성공은 현실적이며 물리적이다. 즉 행복은 주관적 느낌이나, 성공은 자신이 세우는 어떤 목적을 달성 하였을 때 이를 성공했다고 잠시 느끼는 쾌감이다. 그러므로 그 물리적 성공이 반듯이 나에게 영원한 행복을 주는 것은 아니다. 예를 들어 대다수의 사람들은 거지나 노숙자 들을 볼 때 다 불행한 사람들이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그들 중에도 행복을 느끼고 사는 사람들이 얼마든지 있을 수 있다.

밝은 대 낮에 등불을 들고 거리를 누비고 다녔던 그리스의 거지 철학자 디오게네스의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을 것이다. 당시 수많은 철학자들이 천하를 호령하던 알렉산더 대왕을 보러 찾아왔지만 디오게네스는 얼굴조차 보이지 않았다. 이를 이상히 여긴 대왕은 추운 겨울 어느날 거지 철학자 디오게네스를 직접 찾아 나섰다. 거리에 버려진 원통 항아리 속에서 햇빛을 즐기는 디오게네스를 발견하고 “나는 알렉산더 대왕이다”하고 신분을 밝히자 디오게네스는 통속에서 나오지도 않고 “저는 디오게네스입니다”하고 대답했다.

대왕: 너는 나를 두려워하지 않는가? 거지: 대왕께서는 선한자입니까 악한자입니까? 대왕: 선한자다. 거지: 선한자를 무엇 때문에 두려워합니까? 대왕: 네게 소원이 있다면 내게 말하라. 내가 들어주리라. 거지: (한숨을 휘 저으며) 제게 비친 햇빛을 가리지 않으면 고맙겠습니다. 부하들이 오만 불손한 그를 치려하자 대왕이 이를 제지하며 “네게 선택권이 있다면 황제가 아니라 디오게네스가 되고 싶다”고 말했다. 알렉산더 대왕은 수많은 대신들과 산더미 같은 일에 둘러싸인 자신보다 거지로 지낼지언정 참 자유를 누리며 당당하게 소신껏 행복하게 살아가는 디오게네스가 부러웠다.

세상의 대다수의 사람들은 행복이나 성공의 기준을 명예나 출세나 돈에 두고 있다. 관 · 검사나 의사, 교수, 국회의원, 장관, 돈 많은 사업가, 연예인이 되면 아주 크게 출세했다고 하고, 세상은 이런 사람들을 성공자라 부르며 행복할 것이다 생각한다. 그러나 그들의 대다수는 행복과 거리가 멀다.

그들의 내면을 들여다보면 비정한 다름과 탐욕과 권모술수가 난무한다. 권력의 뒤편길에서 일어나는 부조리들은 결국 그들에게 불행을 가져다 주었고, 재벌들의 부의 축재과정 속에서 벌어지는 탐욕의 게임은 부모, 형제들 간의 재산다툼으로 인한 골육상쟁으로 이어져 가족의 비극을 맞이하는 예를 얼마든지 볼 수 있기 때문이다.

얼마 전 타계한 세계적 부호였던 애플사



송택규 박사  
JTNTV 주필

의 CEO 스티브 잡스는 결국 돈과 권력은 인간의 영혼을 팔아먹고 영안을 흐리게 만든다고 죽기 전 고백했다고 한다. 그래서 성경은 돈은 일반 악의 뿌리요 권력의 교만은 멸망의 선봉이라 했다.

세상의 성인군자들은 하나같이 가난했다. 그들은 부귀영화를 버리고 청빈하게 사신 분들이다. 예수님은 하늘의 높고 높은 보좌를 버리고 낮고 낮은 환관과 고통의 땅으로 내려 오셨다. 불교의 석가모니도 가비라 성주의 왕자로 태어 났으나 그 자리를 버리고 고행의 세상으로 나왔다. 그 분들은 물질세계보다는 정신세계를 택했다.

행복은 마음먹기에 달린 것이다. 귀세나 물질은 탐하는 한 진정한 행복이나 성공은 없다. 행복이나 성공은 탐하면 탐할수록 점점 더 멀리 가버리고 말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성경은 인간들의 끝없는 탐욕을 빚대어 아흔아홉 마리의 양을 가진 자가 한 마리의 양을 가진 자에게서 그것을 빼앗아 백 마리를 채우려 한다고 하였다.

귀세나 명예나 돈에 목적을 두고 매달릴 때 이미 그는 그것들에 노예가 된다. 귀세나 돈이나 명예가 필요 없다는 것이 아니다. 그것에 집착할 때 그것에 노예가 되어 불행해지기 때문이다. 하나님은 욕심을 버리라 하셨다. 집착을 내려놓고 주셔도 좋고 안주셔도 현재로 만족한 생활을 할 때 비로소 자유하며 행복해 질 것이다.

사도바울은 “어떠한 형편에든지 내가 자족하기를 배웠노라”고 하였다. 그는 수없는 고난 중에도 스스로 만족하며 법사에 감사하였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며 순리적인 삶인 것이다. 어떠한 상황에서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선물로 알고 감사하며 인내하며 살아가는 것이 순리(順理)인 것이다.

자연의 곤충들은 철에 따라 보호색을 띤다. 물은 어느 그릇에건 다 담겨진다. 깊은 산속의 웅덩샘이 수많은 계곡의 난관을 극복하고 바다에 다다른다. 이것이 만물의 법칙이며 하나님의 섭리이다. 바로 진정한 행복이나 성공은 예수그리스도 안에서 주신 은혜에 자족(自足)하며 감사 할 줄 아는 사람이 느끼는 감정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 大韓民國 의 未來를 위한 教育의 改革을 위한 研究 (6)

(韓國近代教育의 始作과 發達의 歷史的 考察)(1884년-1945년)

〈102호에 이어서〉  
3) 기독교 선교사에 의한 근대학교의 설립  
우리나라의 근대교육의 시행에 공헌한 집단으로 기독교 선교사들을 들 수 있다. 기독교 선교사의 대부분은 미국인들로서 1880년대 초반에 한국에 선교사가 입국을 하게 되었다. 특히 1884년에 개신교 선교사인 알렌(Allen R. S. Mackey) 등의 입국으로 그 세력을 확대하여 나갔다. 선교사들은 고종에게 선교 의료 교육 활동의 허가를 득하고 적극적으로 활동하였다. 특히 알렌은 의료선교사로서 그 활동의 영역이 선교 의료 학교 등으로 다양하고 적극적이었다. 그리고 1885년에 아펜셀러, 언더우드 등의 목사들이 내한하여 더욱 그 영향력이 확대되었다. 선교사들에 의하여 설립된 대표적인 교육기관은 배재학당, 이화학당, 경신학교, 정신학교 등을 들 수가 있다.

고종 22년(1885), 미국인 목사 아펜셀러는 한성에 학당을 세워 청년들을 모아 신학문을 가르치기 시작했다. 고종은 반상을 가리지 않는 이 학당에 나라의 새로운 제목을 키워달라는 뜻에서 배재학당이라는 이름을 하사했다. 영국 선교사 뱁가와 김모어는 영어를 가르치는 육영공원을 세웠다. 미국인 의사 알렌이 재동에 세운 무료진료소 제증원은 훗날 세브란스의 학교를 거쳐 연세대학교로 발전한다. 미국인 선교사 언더우드는 관해원에

서 과학을 가르치는 한편 고아원을 설치하여 운영하기 시작했다. 경신학교는 언더우드목사가 1886년에 한성 정동에 고아원을 설립한 것에 비롯된다. 언더우드는 고아원에서 고아들을 상대로 자선사업과 교육사업을 실시하다가 1891년에 학교체제로 전환하여 언더우드학당(예수교학당)으로 개편하였다. 예수교학당에서는 체조 작문 산술 지리 등의 교과를 가르쳤다. 배재학당은 1885년에 아펜셀러가 개설하여 초기에 2명의 학생에게 영어를 가르친 것에서 출발되었다. 배재학당은 1886년에 고종황제가 배재학당이라는 교명을 하사함으로써 더욱 발전을 하게 된다. 배재학당은 배재학당규칙을 제정하여 근대학교의 형태를 완전하게 갖추었다. 배재학당의 교육내용은 영어, 성경이 중심이 되고 한문, 천문, 수학, 역사 등의 근대 학문에 의한 교과목을 교육하였다. 고종 23년(1886) 5월에는 미국인 선교사 스크랜튼의 부인이 정동 자기 집에서 단 한 명의 여학생을 가르치기 시작했다. 여자에게는 교육의 기회조차 주지 않은 5백년 금기를 깬 첫 여성 교육기관이었다. 이듬해 건물을 마련하여 학생 수를 늘린 이 학교에 이화학당이라는 이름을 하사하여 신여성 교육을 지원했다. 이화학당은 여선교사인 미국인 스크랜튼(Scranton)이 1886년에 방한

한으로 개설하였다. 우리나라 최초의 여성 교육기관이었다. 당시 왕비(민비)는 이화학당이라는 편액을 내려 주어 교명을 지었다. 이화학당은 초기에 그 발전이 미흡하였다. 교육단계는 초등학교 수준에 머물고 찬송가를 영어로 가르치며 산술, 언문, 역사, 한문 등의 교과목을 가르쳤다. 그리고 학생과 교사의 확보도 어려웠다. 정해진 학급이 생긴 것도 1902년 경이었다. 근대교육에서 여성의 교육에 어려움이 있었다. 스크랜튼부인은 수원에 삼일 여자 학교를 세웠다 후에 매향으로 이름을 바꾼다 정조가 새로운 개혁을 위해 화성을 세운 그 도시에 하나님은 우리나라 최초의 여성이 공부하는 사립 학교가 세워졌다 그들에게 성부 성자 성령이 하나님 한분임을 삼위일체 하나님을 가르치기 위해 삼일학교라 명하였다. 교훈은 “경천애인”(마22:37-39)“[37]예수께서 이르시되 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였으니 [38]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다 [39]둘째도 그와 같으니 네 이웃을 네 자신 같이 사랑하라 하였으니” [37] Jesus replied: “Love the Lord your God with all your heart and with all your soul and with all your mind.[38] This is the first and greatest commandment. [39] And the second is like it: ‘Love your neighbor as yourself.’” 수원성 한복판을 흐르는 개



김창룡 목사  
칼럼리스트 金昌龍 牧師  
(하나님미디어인하교회)

천 옆 가난한 저자거리의 교육도 받을 수 없는 여자들이 3명을 모아 학교를 시작했다. 후에 그 학교는 조선최초의 여성 서양화가 나혜석이란 인물이 배출된다. 필자는 역사의 교육의 산실인 매향에 가끔 들리고 그 정원에 오랜 세월의 풍상에서도 꽃피어 자태를 지켜온 소나무를 바라보면서 기도 한다 그리고 한달에 한번 체를 인도한다. 만약 이 학교가 서울에 세워 졌다면 이화학당 유명한 학교가 되었으리라. 필자는 “매향 100년사”에서 조선 말 선교사들의 열정 있는 사역의 열매들과 우리나라 근대교육의 뿌리와 역사를 찾아볼 수 있었다. 1902년부터 1945해방까지의 우리나라 교육의 역사를 아주 잘 기록하며 일제 강점기간 우리나라 학교들의 가슴시린 아픔을 느끼며 공감할 수 있었다. 차근차근 시간을 가지고 우리나라 교육의 뿌리와 격동의 역사 속에서도 신앙과 학교를 지키려 몸부림쳤던 믿음의 선배들과 교육자들의 피와 땀과 눈물을 공감하며 새로운 세대를 준비하는 의로운 자들에게 사명의 불씨가 되길 소망하는 바이다  
〈다음호에 계속됩니다.〉

## 대한민국과 미국을 위해 기도회 열어

방주교회 주관 9월 사랑의 점심식사 대접에 200여 명 참여



▲홍영환 목사가 참여한 어르신들에게 “우리나라와 미국을 위해 기도합시다”라고 설교하고 있다.

방주교회 주관으로 매월 둘째 주 목요일에 루터란중앙교회(홍영환 목사)에서 ‘사랑의 점심식사’ 대접행사가 열린다. 추석을 앞둔 9월 행사는 9월8일(목) 오전11시 루터란중앙교회에서 김영규 목사의 사회로 진행 되었다. 2010년 9월부터 시작한 ‘사랑의 점심식사’는 방주교회 김영규 목사와 장로들, 온 성도들의 뜨거운 사랑으로 매년 200여 명의 어르신들에게 점심을 대접해오고 있다. 셋별선교회 단원들의 찬양 ‘하나님의 나팔소리’와 ‘그 사랑 얼마나’ 두 곡과 무용단의 무용 후 홍영환 목사의 설교

가 있었다. 홍 목사는 디모데전서 6장 11절-12절을 본문으로 ‘선한 싸움을 싸우라’는 제목으로 설교했다. 홍영환 목사는 “신앙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는 것이지 세상 욕심을 위한 싸움이 아니다. 이 추석은 우리들을 낳고 기르신 부모님들의 사랑을 기억하게 하는 시간이다. 또한 국민들은 시민정신을 가지고 하나로 모여 살아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홍 목사는 계속해서 “우리 모두의 생명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라고 강조했다. 이 난국을 위하여 기도하면서 즐겁고 기쁘게 살아가시기를 바라면서 특별히 우리나라와 우리가 살고 있는 미국을 위하여 기도하면서 힘 있게 살아가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대한예수교 장로회



담임 정기환 목사

전원중앙교회

주 일 예 배 안 내

1부 주일 오전 11:00  
2부 오후 1:30  
주일저녁 오후 7:00

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상이로75번길 30-5  
☎(032)321-9109

대한예수교 장로회



담임 이기웅 목사

영적대각성운동본부

주 일 예 배 안 내

주일 오전 11:00  
오후 2:00  
수요일예배 밤 8:30

경기도 광주시 묵동 378번지  
☎수양관 031)769-0692-3

대한예수교 장로회



담임 오종설 목사

홍성제일교회

주 일 예 배 안 내

주일 1부 오전 9시  
2부 오전 11시  
주일밤 오후 7시 30분  
수요일예배 오후 7시 30분

충남 홍성군 홍성읍 내포로 146번길 36-8  
☎(041)634-0441(사무실) 633-6146(목양실)

대한예수교 장로회



담임 이상중 목사

새용진교회

주 일 예 배 안 내

일 낮 오전 11:00  
수요일 오후 8:00  
새벽기도회 새벽 5:00

우) 55353 전북 완주군 용진면 원구역2길 15-5  
전화 : 063)244-2374 010-9696-6377

대한예수교 장로회



담임 박민규 목사

새생명교회

주 일 예 배 안 내

주일 오전 10시30분  
오후 2시00  
수요일예배 저녁 7시00

경기도 양주시 남면 구암리236-4  
☎(02)385-2571/010-9621-9627

기독교대한하나님의성회



담임 임해숙 목사

수원할렐루야농아교회

주 일 예 배 안 내

주일 오전 11시  
오후 2시  
수요일예배 오후 8시  
금요일기도회 오후 9시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서호동로 62  
☎(031)224-4947 H.P 010-4611-3221

주성청각장애인교회



담임 박용숙 목사 (우술초)

주성청각장애인교회

주 일 예 배 안 내

주일 오전 11시  
오후 3시  
수요일 오후 7시  
금요일 오후 8시

서울특별시 송파구 석촌동 288-6  
☎(02)414-1191 H.P 010-3775-5154

장기요양기관(행복의집)



원장 박순중 목사

행복의집

가족처럼 어르신(환자)을 모십니다.  
(등급판정-1급 ~3급자 환영)

www.1004tv.net 강원도 삼척시 도계읍 늑구리  
☎(033)541-0687 H.P 010-7405-9191

강릉산성그리스도의교회



담임 최낙현 목사

주 일 예 배 안 내

주일 오전 10시 30분  
오후 1시  
오후 1시 30분  
오후 2시

강원도 강릉시 강동면 오이골말길58-20  
☎(033)655-0691, 0692 H.P 010-6409-0091

대한예수교 장로회



담임 서명범 목사

공덕교회

주 일 예 배 안 내

장 로 : 송두현 박성현  
장립집사 : 강정구, 황성영

주일 1부 오전 11시  
2부 오후 3시  
수요일 오후 8시  
금요일 오후 9시

충남 공주시 일락산2길 6-1(봉황동)  
☎(041)853-9966 http://lov153.cafe24.com

기독교대한성결교회



담임 박원근 목사

두란노교회

주 일 예 배 안 내

주일 1부 오전 11시  
2부 오후 2시  
수요일 오후 7시

충남 공주시 봉황동 96번지  
☎(041)854-3676 H.P 018-320-1507

조에 교정선교회



담임 유순옥 목사

조에/생명살리는 교정선교

청송교도소  
청주교도소  
춘천교도소  
직촌(직업훈련소)

경기도 안양시 만안구 장내로 89번길 9-1 102호(안양동)  
☎(070)8632-6993 H.P 010-3035-5704

# 기독교화해중재원 박재운 원장 등 내방

교회분쟁 화해 중재위해 상호 협력기로

한국기독교화해중재원 원장 박재운 변호사(전 대법관)와 부원장 장우건 변호사 등이 지난 21일 오전 한국교회연합을 방문하고 대표회장 조일래 목사와 상호 협력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원장 박재운 변호사는 “한국교회가 부흥하는 이면에 교회분쟁이 급증하면서 사회법정으로 달려가는 일이 급증하고 있으나 기독교의 정신은 우선 화해를 통한 갈등 해소”라며 “재판에 앞서 화해와 중재를 우선으로 활동하는 기독교화해중재원을 통해 먼저 문제 해결의 길을 모색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대해 대표회장 조일래 목사는



는 “교회분쟁을 화해로 조정하기 위해 애쓰는 기독교화해중재원의 노력에 감사를 표한다”고 말하고

“교회내의 분쟁사건이 없으면 좋겠지만 부득이 발생할 경우 소송에 앞서 우선 기독교화해중재원을 거

치도록 회원교단에 협조를 요청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조일래 대표회장은 “교회분쟁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도록 교회 모범 장관을 화해중재원내 교회법률 전문가들을 중심으로 만들면 한국교회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주문하고 “교회 분쟁 예방을 위한 세미나를 한교연이 개최하게 될 때 기독교화해중재원이 적극 협력해 줄 것을 요청했다. 이에 대해 기독교화해중재원 원장 등은 어느 때든 불려만 주시면 협력하겠다고 약속했다.

이날 기독교화해중재원에서 원장 박재운 변호사를 비롯, 부원장 장우건 변호사, 사무처장 유재수 장로, 서성운 사무국장이 참석했다.

## 안산시동성애반대범시민대책협의회

“안산시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안)” 제정 폐기 기자회견



안산시동성애반대범시민대책협의회는 지난 25일 안산시청 정문 앞에서 200여명의 각계각층의 인사들과 시민들 그리고 단체들이 모여 시민의 근심거리 “안산시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안)” 제정 폐기를 위한 기자회견을 열고, 77만 안산시민을 위협하는 조례안의 폐기를 위해 끝까지 싸울 것을 천명하였다.

기자회견을 주최한 안산시동성애반대범시민대책협의회, 안산시 기독교연합회, 안산통일광장기도회, 수원통일광장기도회, 안산상록교구협의회, 안산단원교구협의회, 안산목요목회자기기도회, 안산총신동문회, 안산성서화운동, 차세대바르게우기학부모연합, 통일한국대학생연대, 건강과가정을위한학부모연합,

바른성문화를위한국민연합, 건강한사회를위한국민연대, 바른교육학부모연합, 참교육어머니전국연합, 나라사랑학부모회 등은 안산시동성애반대범시민대책협의회 사무총장 윤치환 목사의 사회로 기자회견 배경 및 의의를 설명하고, 국민의례와 애국가를 제창을 시작으로 발언과 성명서를 낭독하였다.

발언에는 안산시기독교연합회 부회장 남능현 목사, 안산시 상록구 목회자 강은주 목사, 안산시 탈북민선교사 김요한 선교사, 안산시동성애 반대범시민대책협의회회원 윤덕률 목사, 박영광 형제, 안산시 기독교연합회상임부회장 조종제 목사가 하였고, 나라사랑학부모회 전해근 남이 성명서를 낭독하였으며, 사무총장 윤치환 목사의 선창

으로 구호를 제창하고 기자회견을 마쳤다.

강렬한 태양이 내리쬐는 도로 한복판에서 땀을 흘리면서도 안산시청 앞에 모인 200여명이 넘는 시민들은 한 목소리로 외쳤다.

▶시민의 걱정만 늘리는 준비되지 않은 안산시 인권조례안 즉각 철회하라! ▶77만 안산시민을 에이즈, 세균 폭탄으로 위협하는 안산시 동성애 인권조례 폐기하라! ▶시민합의라고 선전해 놓고 진심어린 시민들의 목소리를 묵살하는 안산시인권조례 즉각 폐기하라! ▶안산노동인권조례를 만들어 놓고 한 달 만에 동성애 옹호 조작하는 안산인

권조례 웬말인가! 즉각 폐기하라! ▶동성애를 교묘하게 인권을 만들려는 안산시는 진정으로 시민을 위한 인권인가! 안산인권조례 즉각 폐기하라!

▶안산인권조례는 동성애 옹호조장하는 국가인권위원회법에 근거한 것이기에 즉각 철회하라! ▶동성애는 에이즈를 전파하는 위험행동이기때 이를 조장하는 안산인권조례 즉각 폐기하라! ▶대한민국을 동성애로 인한 에이즈 환자 1만 3천명으로, 에이즈 위험 국가가 되게 하였고, 청소년의 에이즈 확산으로 악한 짓을 하고 있는 국가인권위원회법에 근거하여 만들어진 안산인권조례 즉각 폐기하라! 고한 목소리로 외치며 끝까지 투쟁할 것을 다짐하였다.

※ 안산시 동성애 반대 범 시민 대책 협의회의 발표한 성명서 JTNTV www.jtntv.kr 오픈니언에서 다시 볼 수 있다.

## 피종진 목사 초청 10월 국내·외 성회



피종진 목사

010-5255-7777  
Godbless333@gmail.com  
대한예수교장로회  
부산총회총무국  
세시경구교회로 4  
T:02)3411-9191  
F:02)401-7770  
F:02)3411-9111

3(월) 오전 카렐 강남곡기도원(원장 김성광 목사) ☎031)584-1001  
3(월) 오후 대구 용담기도원(이하중 목사) ☎010-2596-2353  
3(월)~ 5(수) 포항 브니엘교회(박민정 목사) ☎010-6546-0108  
8(토) 오전 서울 소양교회(연인재 목사) ☎010-2711-7777  
10(월) 오전 김포 동산교회(김종우 목사) ☎031)996-9155  
10(월) 오후 부천 천왕교회(정민철 목사) ☎010-3224-2345  
11(화) 오후 부산 목암순복음교회(김영도 목사) ☎010-9454-5285  
주최: 영남기독교치유아카데미  
14(금) 오후 서울 소양기도원(원장 연인재 목사) ☎010-2711-7777  
주최: 한국영성부흥사총연합회(대표회장 조영성 목사)  
16(주) 저녁 김해 주안교회(정성은 목사) ☎051)322-5707  
주최: (사)한국복음화운동본부(대표총재 피종진 목사, 대표회장 정성은 목사)  
한국교회100주년 기념관 ☎02)741-4370  
주최: (사)한국복음화운동본부(대표총재 피종진 목사, 대표회장 정성은 목사)  
제201차 해외성회(201st Overseas Assembly)  
17(월)~21(금) 미국(U.S.A) 남태평양 벨라오안성회(하승국 목사) ☎680)587-1010  
주최: 남태평양복음화성회(준비위원장 홍성선 목사)  
24(월)~26(수) 뉴질랜드(New Zealand) 한인장로교회  
27(목)~30(주) 뉴질랜드(New Zealand) 오를랜드 소양교회(박노영 목사) ☎642)7480-1172

## 예장(고려)총회, 총회장 홍록두 목사 연임

제66회 총회, 개역개정판 및 새찬송가 사용 결의

대한예수교장로회고려총회는 지난 9월 20일(화)~23일(금)까지 경기도 파주시 파평면 고려신학대학교 아카데미캠프에서 '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라는 주제로 성 총회가 개최됐다.

예장고려총회는 제66회 정기총회에서 홍록두 목사를 총회장으로 재추대하고 연임을 결정했다. 총회장 홍록두 목사는 교단안정과 총회원 간 친목을 공고히 하는데 주력기로 했다. 아울러 수년 전 교단 분열로 아픔을 겪은 바 있는 고려총회는 총회원들의 더욱 긴밀한 유대와 헌신을 통해 고려의 자랑스런 역사를 앞으로도 지켜나갈 것이라며 소신을 밝혔다.

총회장 홍록두 목사는 개회에 배 설교를 통해 “우리 총회는 하나님의 명령과 성경의 가르침을 입으로만 강조할게 아니라, 직접 몸으로 실천하는 총회가 되어야 한다”면서 “한국교회 보수신학의 중심에서, 진리를 수호



하며, 거짓을 타파하는데 앞장서는 공의로운 일에 더욱 정진하는데 힘을 쏟을 것을 주문했다.

이날 회무처리에서 총회장 홍록두 목사는 현의한 성경 찬송의 변경 사용 안을 통과시켰다. 고려총회는 기존의 성경은 개역한글판을, 찬송은 통일찬송가를 사용해 왔으나, 금번 결의를 통해 앞으로 개역개정판과 새찬송가를 사용할 방침이다.

제66회 정기총회에서 선출된

신 임원은 다음과 같다.

△총회장 홍록두 목사(서머나교회) △부총회장 이진성 목사(창원해광교회) △총무 박영출 목사(임마누엘교회) △서기 이현상 목사(서울남교회) △부서기 안홍수 목사(영천교회) △회록서기 표성철 목사(대구광명교회) △부회록서기 고일근 목사(하림교회) △회계 조영찬 장로(경향교회) △부회계 이정 장로(보림교회)

## 예장총회(정통) 52주년 정기총회, 총회장 양정섭 목사유임

하나님의 말씀대로 든든히 서 가는 정통총회가 될 것을 다짐



대한예수교장로회 정통총회가 지난 9월 19일 오전 11시 구로동 평안교회에서 제52차 정기총회를 갖고 총회장 양정섭 목사가 유임되었다.

이날 1부 예배는 상임총무 임정태 목사 인도로 진행되어 부총회장 이영춘 목사가 기도를, 임정태 목사가 성경(히 11장 8-16절)을 봉독하고, 총회장 양정섭 목사는 “믿음의 축복”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선포했다.

양 총회장은 말씀을 통해 “우리의 믿음이 반석위에 세워져서 든든하게 서서 열매를 맺을 때가 되었다면서 우리는 아브라함의 믿음을 본받아 모세처럼 앞으로 전진하여 하나님의 한 역사를 이루어

나아갈 것을 강조하면서 절대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보수신앙으로서 목자들이 바로 서고 모함으로 하나님의 기적역사를 이루어가며 능지 못함이 없는 삶에 있는 믿음의 목자들이 되어 모든 사람들을 주께로 인도하며 영원한 영생길로 합치게 전진하는 일에 뜻을 같이하여 총회의 발전과 모든 기관을 섬기는데 앞장 서 갈 것을 주문했다. 또한 하나님의 말씀대로 든든히 서가는 정통총회가 될 것을 다짐하고 축도로 1부 예배를 마쳤다.

이어 2부 정기총회는 부총회장 김인호 목사의 기도로 서기 전대식 목사가 보고, 총회장 양정섭 목사가 개회를 선포했다. 순서에 따라 전 회의록 낭독, 사업보고, 재정보고 각 노회 보고 임원회 보고 등으로 이어졌다.

정통총회 제52주기 임원선거의 결과에서 총회장 양정섭 목사(유임), 부총회장은 김홍룡 목사, 이

영춘 목사, 김인호 목사, 양성은 목사(유임), 한세전 목사(신임), 상임총무 임정태 목사, 총무 박평원 목사, 부총무 임세준 목사(유임), 해외총무 최은희 목사, 해외부총무 이영숙 목사를 선출하고, 협동총무 김두경 목사, 강대하 목사, 권순용 목사(유임), 서기 전대식 목사, 부서기 민경구 목사, 회의록서기 조익수 목사, 부회의록서기 김종경 목사, 회계 김영의 목사, 부회계 김병섭 목사, 감사 한성욱 목사, 이순례 목사 등이 유임됐다.

또한 신 안전토의를 진행한 후 총회장 양정섭 목사는 고전 4장 1-2절을 낭독하였으며 월례회장 한세전 목사의 축도로 폐회되었다. 한편 대한예수교장로회 정통총회는 예장합동 배재민 목사, 박복경 목사에게 의해 창립되었으며 서울노회와 중앙노회가 연합하여 반세기에 이르러 부흥 발전한 가운데 오늘에 이르렀다.

# 대한예수교장로회총회(진리) 101회 총회장 장한국 목사

총회장



장한국 목사  
(주사랑교회)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리이다(시73:28)

부총회장



조조복 목사  
(창영교회)

서기



오진철 목사  
(유성교회)

부서기



박민규 목사  
(새생명교회)

회의록서기



배만복 목사  
(축복교회)

부회록서기



김성덕 목사  
(생수교회)

회계



이영이 목사  
(유전교회)

부회계



김정미 목사  
(새에루살렘교회)



예장총회(진리)는 101회기 성 총회를 마친 후 화기에애한 가운데 기념촬영을 가졌다.



총회사무실 / 경기도 의왕시 계원대학로10, 7층 대림프라자 고호5(구.내손동) Tel 031)424-7612

총회장 : 장한국 목사 H.P 010-4436-7060, 서기 : 오진철 목사 H.P 010-8914-0969







## 2016 주님과 함께 가정예배 소진우 목사(예복 교회 담임 / 본지 사장)



소진우 목사

- 예복교회 담임
- 지저스타임즈 · JTNTV 방송 사장
- 라이프월드미션 총재
- 극동방송 칼럼리스트
- 백석TV 칼럼리스트
- CTS 칼럼리스트

**제목: 자녀 된 우리**  
**성경: 시편 34편 11절**  
**찬양: 찬송가 490장**

본절의 저자는 자녀들이 라고 부르는데 이러한 말은 이제 들려주게 될 이야기가 중요하므로 앞으로 진행될 교훈에 바짝 귀를 기울일 것을 당부하기 위하여 사용한 호칭으로 보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의 사랑하는 자들을 부모와 자녀 관계로 표현한 성경을 우리는 발견 할 수 있습니다. 오늘 내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 가운데 심겨져 그 말씀대로 말하고 말씀대로 생각하고 말씀대로 행동하길 축복합니다.

**제목: 복 받기 원하는 자**  
**성경: 시편 34편 12절**  
**찬양: 찬송가 389장**

사실 땅 위에서 오래 살고 싶은 소망은 인간의 본능적이고 자연스러운 욕망이며 그것을 바라는 일은 결코 악이 아닙니다. 분명 성경은 장수를 긍정적인 관점에서 보고 있습니다. 그러하기에 그러한 복도 인간의 바람이나 소망, 과학 문명의 발달이 가져다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절대적 주권이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내게 이 하루를 허락하셨다면 하나님의 뜻에 따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으로 보여지길 소망합니다.

**제목: 장수의 조건**  
**성경: 시편 34편 13절**  
**찬양: 찬송가 528장**

먼저 장수의 조건으로 제시하고 있는 것은 혀를 악에서 금하고 억제하는 것 즉 진리가 아닌 헛된 말을 삼가하는 것입니다. 이어지는 조건은 한마디로 남을 속이지 않는 것을 뜻합니다. 장수의 첫 번째 조건이 된다는 사실은 우리로 하여금 언어 사용 및 억제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더 실감케 합니다. 복된 언어, 긍정의 언어를 하는 믿음있고 덕스러운 일꾼이 되길 바라고 주님

이 예비하신 복을 누리며 사는 입이 되길 바랍니다.

**제목: 나의 선택과 결정은**  
**성경: 시편 34편 14절**  
**찬양: 찬송가 545장**

선을 행위로 나타내는 데는 크게 소극적인 면과 적극적인 면이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먼저 소극적인 의미의 선행은 윤리적인 악을 범하지 않는 것 즉 악을 버리는 의의 의미로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적극적인 의미의 선행은 여기에서 더 나아가서 구체적으로 의를 행하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장 큰 의는 화평을 따르는 것이라 오늘 본문은 말합니다. 무엇을 따를 것인가는 내 선택과 결정에 달려 있습니다.

**제목: 하나님의 눈이**  
**성경: 시편 34편 15절**  
**찬양: 찬송가 397장**

여호와와 눈이 특정의 대상을 향한다는 것은 그 대상을 보호하고 지켜 준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장수하기를 원하는 자를 겨냥하는 권고가 계속되고 있는 본 문맥을 고려할 때 이 대상이란 막연하고 추상적 개념의 그 누군가가 아닌 언행에 있어서 소극적으로 그리고 적극적으로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하는 자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 어떤 보호보다 강력한 하나님께서 나를 보호하신다는 강의 의식과 믿음을 가지고 살기를 축복합니다.

**제목: 사랑의 눈으로**  
**성경: 시편 34편 16절**  
**찬양: 찬송가 284장**

본절은 바로 앞절의 여호와와 눈과 유사성이 있습니다. 말하자면 의인과 악인은 하나님의 눈 아래 동일하게 서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동일한 하나님의 눈이 전자에게는 보호의 그리고 후자에게는 심판의 의미가 있습니다. 그 어느 쪽도 하나님의 시선을 피할 수 없습니다. 항상 그리고 어느 상황에서도 그들은 동일하게 하나님의 보신 바 되고 있는 것입니다. 나를 감찰해보시지만 사랑의 눈으로 바라보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길 원합니다.

**제목: 우리의 특권**  
**성경: 시편 34편 17절**  
**찬양: 찬송가 449장**

의인이 누리는 그리고 받은 특권이 있다면 그것은 어려움에 처했을 때 하나님이 들으시고 구원하시리라는 확신을 갖고 그 분께 부르짖고 그분의 이름을 부르는 일입니다. 이러한 사실을 본 시의 기자가 감사의 시 속에서 새삼 강조하는 것은 의인의 간구를 저버리지 않으시는 하나님을 증거 하기 위함입니다. 우리에게 가진 예수 이름의 권세를 가지고 세상 가운데 나아갑시다. 또한 나의 아버지 되시며 힘 되시며 나를

도우시는 참 하나님을 의지하며 신뢰하며 나아가 할 때 그 분 일하실 줄 믿습니다.

**제목: 가까이 하시는 하나님은**  
**성경: 시편 34편 18절**  
**찬양: 찬송가 261장**

성경에서 하나님은 고아, 과부, 나그네에 관하여 긍휼과 자비로우신 모습과 따스함을 우리 가운데 볼 수가 있습니다. 음식을 먹어 본 사람이 그 맛을 알 수 있듯이 사랑을 받아 본 사람이 그 사랑에 대하여 전할 수 있습니다. 영적으로 혼란스럽고 혼탁한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랑이 머리부터 발 끝까지 채워지고 내 삶을 가득 채워 그 사랑으로 만족하며 또 그 사랑을 전하는데 앞장서는 복을 전달자 삶 살길 축복합니다.

**제목: 고난이 많은 인생 가운데**  
**성경: 시편 34편 19-20절**  
**찬양: 찬송가 439장**

살다보면 왜 내게 이런 고난이 왔는지 또 내게 이런 슬픔이 찾아 왔는가에 대한 원망과 불평의 소리를 자주 주위에서 접하거나 또는 내가 그런 사람 중 한명 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말고 한 박자 쉬어, 한 템포 늦춰 생각해보면 이 고난의 터널과 역경의 시간 속에서도 주님이 늘 나와 함께 하시고 예비하신 기간이라는 사실을 믿는다면 고난의 밤도 희망과 기쁨의 새 아침이 멀지 않았음을 느끼고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제목: 믿는 자로써**  
**성경: 시편 34편 21-22절**  
**찬양: 찬송가 310장**

요즘 시대를 보면 부모가 자식을, 자식이 부모를 향한 살인을 넘어 전 세계 곳곳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다는 믿음 하나로 화형을 당하거나 죽는 사람의 소식을 듣게 될 때 오늘 본문은 하나님께서는 그의 사랑하는 종들과 자녀들을 위하여 어떻게 하신다를 알려 주는 본문입니다. 믿음의 사람으로 산다는 것이 그리 어려운 것 같지만 쉬운일도 아니지만 분명한 사실 한 가지는 최후의 심판 그 날에 승리한다는 사실을 믿으며 믿는 자의 분이 되는 여려분 되시길 바랍니다.

**제목: 사랑의 사람으로**  
**성경: 시편 35편 1-2절**  
**찬양: 찬송가 191장**

제목이 분명히 제시하고 있듯이 본 시의 저자는 다윗이며 그 내용은 다윗이 자신의 대적들에 대하여 읊은 일종의 시라고 할 수 있습니다. 본 시편에 등장하는 다윗의 대적이란 사울이나 자신에게 반란을 일으켰던 암살범 혹은 그의 음모에 공모하였던 하나로 볼 수 있습니다. 사람이 살아가며 나를 좋아해주는 사람도 있지만 다 나를 좋아 할 수 만은 없는 것이 예나 지금이나

인간사는 사회라면 마찬가지로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게 있는 이웃을 사랑 할 줄 아는 사랑의 사람이 됩시다.

**제목: 하늘로부터 오는 참 평안**  
**성경: 시편 35편 3-4절**  
**찬양: 찬송가 279장**

본 절의 표현의 의미는 박해하는 자들의 방편을 무색케 하며 효과가 없게 해 달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대적으로부터 보호해 줄 것을 보증해 달라는 뜻이기도 합니다. 성도는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마음에 평강을 가져다 주십니다. 이 세상의 그 어떤 것으로도 내 마음에 평안함을 가져다 줄 수 없습니다. 이 땅에 넘치는 하나님의 평강이 내 심령과 마음에 가득 넘쳐나 그 평안을 주위에 흘려보내는 피스 메이커가 되시길 바랍니다.

**제목: 요동하지 않을 이유**  
**성경: 시편 35편 5절**  
**찬양: 찬송가 350장**

바람 앞에 겨는 악인의 특성을 잘 나타내 주는 표현 중의 하나입니다. 이러한 표현은 돕는 자가 없는 상태와 무가치한 자의 모습을 그린 것입니다. 시편 1편에서도 그 악인을 묘사 할 때 동일하게 사용 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안에 있는 사람은 어떠한 어려움 가운데에

**제목: 어두운 밤에**  
**성경: 시편 35편 6절**  
**찬양: 찬송가 569장**  
 저자는 대적의 길이 암흑이 되게 해달라고 하고 있는데 이것은 그들이 어디로 가고 있는지 그 앞에 어떠한 위험이 도사리고 있는지 분간할 수 없게 만들어 달라는 뜻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그 앞에 무엇이 있고 어떠한 어려움이 도사리고 있는지 알지 못한 채 밤길을 방황하는 자들의 모습을 연상케 됩니다. 어두운 밤을 걸을 때 작은 불빛 또는 작은 아이의 손길만 있어도 무섭지 않는데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니 이 길을 기쁨으로 갑니다.

**제목: 까닭 없이**  
**성경: 시편 35편 7절**  
**찬양: 찬송가 411장**

까닭 없이 라는 말은 본 절에서 두 번 그리고 19절에서 반복해서 언급되고 있는 이 단어는 11-18절에서 좀 더 충분하게 표출되고 있는 다윗의 고통의 핵심이 무엇이었는지를 느끼게 해줍니다. 까닭 없이 즉 이유 없이 당하는 고통에 불평하고 불만하기 보다는 한 번 곰곰이 생각해서 하나님을 향한 계획을 생각해봅시다. 인간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앞에 나의 선택이 하나님 기뻐하시는 쪽으로 날마다 조율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 평양 광패 두목이었던 이기풍 목사의 아내인 윤함애 사모의 편지

세상과 짝하지 마라  
 5분 이상 예수님을 잊지 마라  
 열심히 교회 봉사를 해라  
 주의 종은 하나님 다음가는 분 이시다  
 주의 종의 가슴을 아프게 하지마라  
 목사님의 가슴을 아프게 하면  
 미리암과 같이 벌을 받게 될 것이다  
 상대방이 내 인격을 어떠한 방법으로 무자비하게 짓밟고 천대와 멸시를 하더라도 십자가에 매달린 예수님만 바라보며 끝까지 참아라  
 내가 세상을 떠난 후에 심판대에서 예수님께서 판가름을 해주실 것이다.  
 그러므로 날마다 참으며 네가 네 자신을 죽여라  
 네가 죽어지지 않을 때 남을 미워하게 될 것이다  
 남을 용서하지 못할 때 예수님도 너를 용서하지 않으실 것이다.  
 나를 제일 미워하는 사람을 용서할 수 있는 사람이 참 그리스도인이다  
 신자의 무기는 감사와 인내와 사랑과 겸손이다  
 감사는 축복을 열고 닫는 자물쇠이기 때문이다  
 성령 충만하지 못하면 겸손할 수가 없다  
 겸손하지 못할 때 성령님은 너를 외면하실 것이다  
 제일 무서운 것은 신앙의 교만이다

서기 2002년 8월 막내딸 이사례 씀

# 소진우 목사 2015년-2016년 성회일정

늘 기억해 주시고 기도해 주신 교회와 동역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담임 소진우 목사**  
 PASTOR SO JIN WOO  
 H·P : 010-8753-7179  
 교회 : (02) 934-1232(대)

- 열방부흥선교협의회 총재
- 극동방송 칼럼리스트
- CBS TV 칼럼리스트
- 지저스타임즈 사장
- JTN TV, 신문 칼럼리스트

#### 2015년 5월

4-7 영광교회(주은석 목사)  
 7 갈멜산금식기도원(임예제 원장)  
 10 천보산기도원(우정재 원장)  
 10-20 봄철부흥성회(예복교회)  
 25-27 소망교회(김주영)  
 28 성산수양관(윤호준 원장)

#### 2015년 6월

1-3 진접교회(송일욱 목사)  
 7 천보산기도원(우정재 원장)  
 15-18 모리교회(조선의 목사)  
 18 오산리금식기도원(함덕기 원장)  
 22-25 천보산기도원(우정재 원장)  
 29-1 비전교회(김원우 목사)

#### 2015년 7월

5 천보산기도원(우정재 원장)  
 6-9 에스겔기도원(김양선 원장)  
 13-16 김해베델수양관(이순자 원장)  
 20-23 반석기도원(김영숙 원장)  
 27-30 에덴금식수양관(안학옥 원장)

#### 2015년 8월

2 천보산기도원(우정재 원장)  
 5-7 한일산기도원(이영근 원장)  
 10-13 광은기도원(김한배 원장)  
 17-20 간월산기도원(이옥란 원장)  
 24-27 천문기도원(최정숙 원장)  
 30 천보산기도원(우정재 원장)

#### 2015년 9월

31-1 언론사 연수원 수련회(대표회장 조강수 목사)  
 1 오산리침자실금식기도원(함덕기 원장)  
 3 성산수양관(윤호준 원장)  
 7-11 은누리복음회(임기호 총재)  
 14-15 교단총회  
 14-16 군자대현교회(이희수 목사)  
 20 주님의교회(오영석 목사)  
 21-24 임직후보자교육  
 27 천보산기도원(우정재 원장)

#### 2015년 10월

6-8 성산교회(정재구 목사)  
 12-13 정기노회  
 18 새빛교회(장동술 목사)  
 19-21 영광교회(임승원)  
 25 천보산기도원(우정재 원장)  
 25-29 겨울부흥성회(예복교회)

#### 2015년 11월

2-5 광선수양관(방만석 원장)  
 9-11 성일교회(강인원 목사)  
 16-18 햇빛교회(황인준 목사)  
 22 천보산기도원(우정재 원장)  
 23-25 영신교회(박조영 목사)

#### 2015년 12월

30-4 미안산선교지방문  
 7-9 삼릉교회(고정익 목사)  
 14-16 정동진 산성 그리스도교회(최낙현 목사)  
 20 천보산기도원(우정재 원장)  
 28-30 천보산기도원(우정재 원장)  
 31 예복교회 송구영신예배

#### 2016년 1월

4-8 필리핀사역지컨퍼런스  
 11-13 원동교회(신현덕 목사)  
 17 천보산기도원(우정재 원장)  
 18-21 에덴교회(안희복 목사)  
 24-27 선일교회(이판석 목사)

#### 2016년 2월

1-4 감림산기도원(이옥란 원장)  
 8-11 광은기도원(김한배 원장)  
 14 천보산기도원(우정재 원장)  
 15-17 대구열린문교회(류창호 목사)  
 22-26 세계선교사대회

#### 2016년 3월

봄철 축복대심방의달

#### 2016년 4월

3 천보산기도원(우정재 원장)  
 4-7 안산세광교회(윤주후 목사)  
 11-12 정기노회  
 12-14 신광교회(이종서 목사)  
 18-20 수도교회(신순철 목사)  
 25-27 양문교회(노희식 목사)

#### 2016년 5월

2-5 영광교회(조강수 목사)  
 8 천보산기도원(우정재 원장)  
 9-11 한우리교회(윤홍준 목사)  
 15-18 예복교회 봄철부흥성회  
 23-26 초대출만교회  
 30-2 천보산기도원(우정재 원장)

#### 2016년 6월

30-2 천보산기도원(우정재 원장)  
 5 새생교회(홍청민 목사)  
 6-10 필리핀 제2교회 헌당식  
 12 천보산기도원(우정재 원장)  
 13-15 사랑의교회(최영식 목사)  
 16 안양갈멜산기도원(임예제 원장)  
 17 신나는교회(이정기 목사)  
 20-24 선교자신학캠퍼스 세미나  
 27-30 사랑제일교회(오민곤 목사)

#### 2016년 7월

3 천보산기도원(우정재 원장)  
 3-9 심야특별기도대성회(예복교회)  
 11-13 모리교회(조선의 목사)  
 18-21 천보산기도원(우정재 원장)  
 25-28 에덴금식수양관(안학옥 원장)  
 31 천보산기도원(우정재 원장)

#### 2016년 8월

10-12 한일산기도원(이영근 원장)  
 15-18 광은기도원(김한배 원장)  
 22-25 감림산기도원(이옥란 원장)  
 28 천보산기도원(우정재 원장)  
 29-1 천문기도원(최정숙 원장)

#### 2016년 9월

5-8 교단총회  
 12-17 추석주간  
 19-23 선교지방문  
 25 천보산기도원(우정재 원장)  
 26-28 다시람교회(방종현 목사)  
 29 군산열교회

#### 2016년 10월

3-6 에스겔교회(김양선 목사)  
 10-11 정기노회  
 17-21 임원수련회  
 23 천보산기도원(우정재 원장)  
 24-27 새진영교회(심정학 목사)  
 31-11,2 홍주교회(오영석 목사)

#### 2016년 11월

6-9 삼릉교회(고정익 목사)  
 14-16 경천교회(이원경 목사)  
 20 천보산기도원(우정재 원장)  
 21-26 네팔산교  
 28-30 행복예수원(이영건 목사)

#### 2016년 12월

4-7 주님의교회(오영석 목사)  
 12-15 천보산기도원(우정재 원장)  
 18-24 겨울부흥성회(예복교회)  
 26-30 온사랑교회(최태식 목사)



대한예수교  
장로회

예복교회

# 수도권지역 경기도 여주 전원주택 분양

공사 지연 관계로  
전원주택 모델하우스 오픈  
2016년 10월 31일 예정!

은퇴하신 목사님!

성도님들의 전원주택으로서, 후회 없도록 작품을 만들겠습니다.  
30여채의 주택과 단지 내에 수양관을 준비 중입니다.

주인이 직접 분양합니다.

수양관을 준비 중입니다

● 본 이미지는 실제 내용과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교통 환경

- ◆ 제2영동고속도로  
(중부고속도로, 광주에서 서원주까지 56.95km) 2016년 11월 개통예정.  
• 대신 IC에서 전원주택 현장까지 2km(2분). • 강남, 분당에서 대신 IC까지 30분.
- ◆ 천호동, 구리시에서 대신 IC까지 45분.
- ◆ 여주 전철역(강남 분당에서 여주까지 11개역 57km) 2016년 9월 개통예정.  
• 강남 분당에서 여주 전철역까지 45분.
- ◆ 전원주택에서 여주시청, 여주 전철역까지 차량 12분.
- ◆ 양평 전철역까지 차량 20분(양평에서 전철로 청량리까지 50분)
- ◆ 제1영동고속도로까지 20km 15분. • 중부내륙고속도로까지 5km 5분.

## 전원주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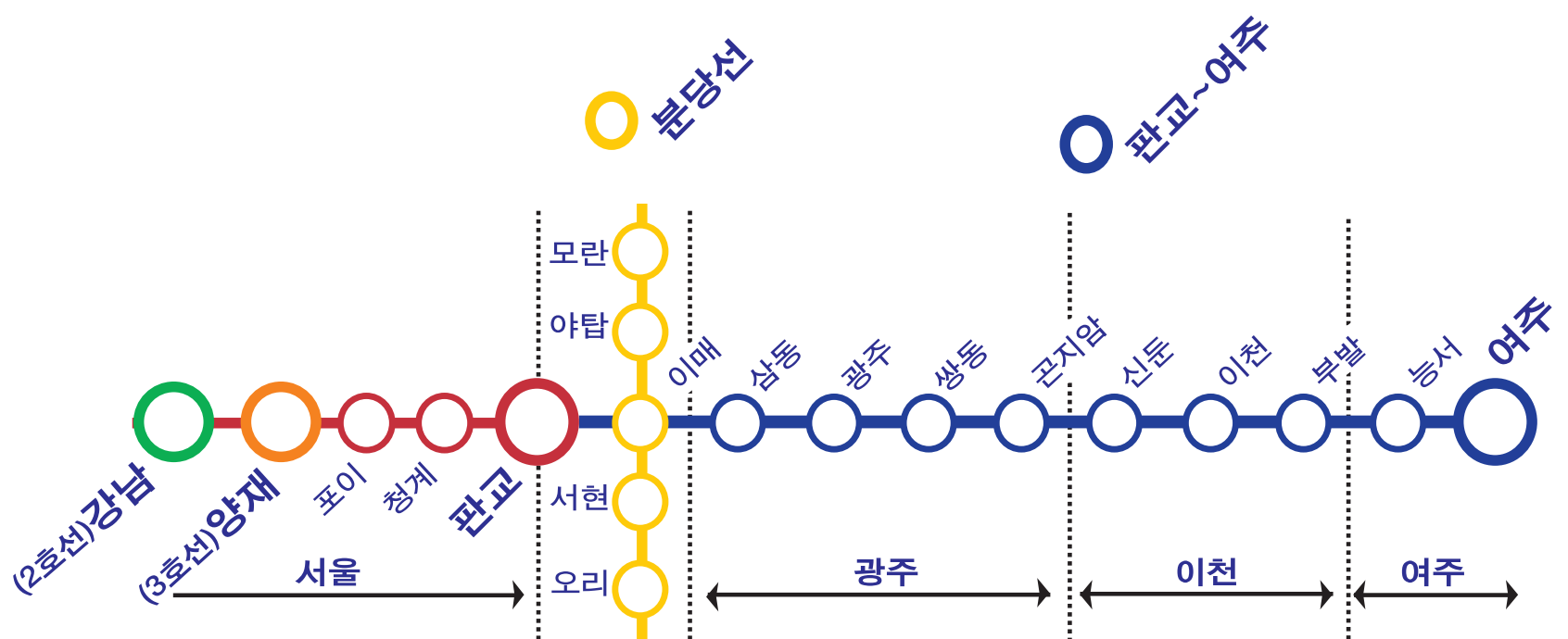
- ♥ (약 1억 4천~1억 6천만원)
- 대지 100평, 주택 20평(1층), 25평(2층), 28평(2층)
- 고급 쇼파, 대형TV, 고급 씽크대, 정원, 잔디, 과일나무, 꽃나무, 팬스, CCTV, 텃밭 30평
- 넓은 진입로, 주택단지 중앙로 7.5m
- 여주상수도개설
- 농협 대출 40% 가능(이자 4%대).

## 기 타

- ◆ 전원주택에서 1km= 면사무소, 파출소, 소방서, 우체국, 농협, 축협, 병원, 약국, 마트, 복지관, 대형운동장 등.
- 한강 자전거도로 3km, • 이포보 4km,
- 세종대왕릉 12km,
- 명성왕후 생가 15km, • 여주 도자기 공장 5km.

## 교육 환경

- ◆ 초등학교, 여중 · 고등학교, 남중 · 고등학교, 어린이집, 학원.



분양문의  
**02) 854-1355**

I 주 소 : 경기도 여주시 대신면 지역(5,000평)

I 전원주택 홍보 : 010-5468-6574, 032)762-3031 I <http://jtntv.kr> (JTNTV방송) 배너광고 중